

인천 서비스산업의 성장동력 확충방안:
제조업과의 연계를 기반으로

2008. 12



한국은행 인천본부
INCHEON BRANCH, THE BANK OF KOREA

이 자료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
의견으로서 한국은행의 공식견해
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인천 서비스산업의 성장동력 확충방안: 제조업과의 연계를 기반으로

2008. 12

이권형* · 박동준**

한국은행 인천본부

*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Tel : 032-260-2637, E-mail : klee@idi.re.kr)

** 한국은행 인천본부 조사역(Tel : 032-880-0047, E-mail : djpark@bok.or.kr)

차 례

<요 약>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II. 서비스산업의 정의 및 특성	
1. 정의 및 분류	4
2. 산업적 특성	9
III. 국내 서비스산업의 구조 및 문제점	
1. 현황 및 구조	12
2. 문제점	14
3. 정책 동향	19
IV. 인천 서비스산업의 구조 및 특성	
1. 산업구조의 변화	25
2. 유형별 분석	31
3. 산업연관 분석	41
V. 종합평가 및 정책과제	
1. 종합평가	55
2. 정책과제	58
<참고문헌>	66

<요 약>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990년대 이후 인천 경제의 산업구조를 보면 부가가치 생산이나 고용 측면에서 광공업 부문의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서비스산업 부문은 증가하는 ‘경제의 서비스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2006년 기준 인천 서비스업 부문(전기, 가스, 수도 및 건설업 제외)의 부가가치 생산비중은 55.0%, 고용 비중은 65.0%로 광공업 부문의 부가가치 생산비중 31.2%, 고용 비중 30.6%보다 현저히 큰 것으로 나타났음
 - 경제의 서비스화는 인천 경제만의 독특한 현상은 아니며, 우리나라의 서울을 비롯해 전세계 선진 도시들의 경제가 발전하면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산업구조의 변화임
- 최근에는 전세계적으로 ‘고용없는 성장’과 ‘성장을 둔화’의 특징을 보이고 있는 제조업에 대한 대안으로서 서비스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유형별 분석, 타 광역시와의 비교 분석, 산업연관분석 등을 통해 인천 서비스산업의 특성을 파악하고, 향후 제조업과의 연계를 기반으로 서비스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과제 및 인프라 구축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함

II. 서비스산업의 정의 및 특징

1. 정의 및 분류

□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산업을 ‘무형의 경제재를 생산, 공급 및 판매하는 산업’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함

— 또한 서비스산업의 구조적 변화와 서비스업과 제조업간의 연계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수요자에게 공급되는 서비스의 기능적 성격에 따라 생산자서비스, 유통서비스, 개인서비스 및 사회서비스로 구분하고자 함

□ 생산자 서비스(producer services)는 컨설팅, 광고, 법률, 회계, 연구개발, 부동산 및 임대업, 금융업, 보험업, 통신업 등 기업 수요에 특화된 서비스업으로 생산자의 생산활동을 촉진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음

— 생산자 서비스 기능은 전통적으로 일정한 사내 부서에서 담당하다가 점차 전문화하면서 독립된 기업으로부터 조달(outsourcing)받게 되면서 나타나게 되며, 이 결과 서비스를 중간재로 투입하는 비중이 증가하게 됨

□ 유통 서비스(distributive services)는 도소매업, 운수업, 창고업 등으로 제품이 생산자에서 최종 수요자에게 도달되기까지의 유통기능을 담당하며, 이 기능 역시 점차 전문 물류기업으로 독립화되는 경향을 보임

□ 사회 서비스(social services)는 표준산업분류상의 공공행정, 국방, 교육 및 의료보건, 사회복지, 종교, 비영리기관, 우편 등

공공성이 큰 사회적 기능을 담당함

- 개인 서비스(personal services)는 음식숙박업, 문화예술, 수리업, 세탁업, 영화 등 최종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서비스임

2. 산업적 특성

- 서비스산업의 가장 큰 특징은 공급되는 서비스가 농림어업이나 제조업 등의 생산물과 달리 무형적(intangible) 소비의 대상으로서 구매 전에 보거나 만질 수 없으며, 재고의 형태로 또는 향후에 소비할 목적으로 저장할 수 없음

- 서비스산업은 최종 소비재로서 경제 성장 및 소득 증가에 따라 수요가 확대되며, 서비스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제조업부문보다 크게 나타남

— 최종 소비재로서의 서비스 수요가 늘어나면서 제조업의 부가가치 창출구조도 서비스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서비스산업이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매출액 증대 측면에서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줌

- 물류, 통신, 금융, 보험, 부동산 개발, 디자인, 광고 등과 같은 서비스는 아웃소싱(outsourcing)을 통해 제조업의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중간투입재로서 소비됨

— 이는 앞서 언급한 분류방식에 따르면 생산자서비스 및 유통서비스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산의 우회도를 증가시켜 제조업과 서비스업간의 산업연관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함

- 교육, 의료, 보건, 사회복지사업 등 주로 사회서비스에 속하는 업종들은 공공성이 매우 강한 서비스산업으로서 인구 고령화, 여성경제활동인구 증가 등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함께 빠르게 확대되어 가는 추세임
- 제조업 부문은 생산성 증대에 따라 노동수요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서비스산업은 제조업보다 인력 의존적인 특성을 나타냄
 - 특히 서비스업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숙련된 전문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부가가치의 생산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음

Ⅲ. 국내 서비스산업의 구조 및 문제점

1. 현황 및 구조

- 국내 산업별 부가가치 생산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광공업은 80년대 후반 30%를 약간 상회한 기간 이후에는 27~29%대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서비스산업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여 92년에는 50%를 넘어섰고 2007년에는 57.6%에 달함
 - 국내 산업별 고용비중도 광공업은 1993~2006년 기간중 32.1%에서 22.4%로 9.7%포인트 감소한 반면 서비스산업은 동기간중 62.0%에서 71.5%로 9.5%포인트 증가하였음
- 서비스 유형별 취업구조를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전반적으로

국내의 생산자서비스와 사회서비스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은 편임

- 생산자 서비스의 경우 산업구조 고도화 및 지식기반 서비스 수요 확대에 의해 사업서비스업, 금융업, 통신업 등을 중심으로 부가가치 및 고용 비중이 모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국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

2. 문제점

- 국내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40%, 프랑스의 52%, 일본의 54% 수준에 불과하여 국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저하시킴
- 또한 서비스업의 부가가치유발계수도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서비스산업의 국제 비교(2005)

(단위: %, 억달러)

	한국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OECD 평균
GDP 비중	57.6	69.9	76.8	75.9	77.0	69.7	68.9
고용비중	66.7	67.6	78.6	76.5	73.9	67.6	69.4
서비스 수지	-206	-279	728	448	132	-520	51.4
노동생산성	100	187.6	252.5	154.6	197.8	163.8	-

주: 한국 통계는 2007년 자료임.

자료: 기획재정부 외(2008).

-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것은 서비스업 중에서도 성장잠재력이 높고 좋은 일자리가 많은 지식기반 서비스업 비중은 작은 반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등 부가가치가 낮은 부문에 고용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임

- 또한 자본 규모가 영세한 자영업자의 비중이 크고 서비스 부문의 R&D 투자가 미흡하여 서비스업 생산성 제고의 제약조건으로 작용함
- 기업의 영세성은 국내 시장 규모가 작은 것과는 연관되지 않, 기본적으로 서비스업종이 기업형이라기보다는 자영업 등 생계형 위주이기 때문임

□ 국내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은 서비스 수지 적자로 나타나 2007년 205.7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음

- 적자서비스 부문은 주로 여행, 사업서비스 및 특허권 등 사용료 3개 부문이며, 특히 개인의 생활수준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직결되는 교육, 관광, 사업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적자가 확대되고 있음
- 여행수지 적자폭이 큰 것은 국내 여행서비스의 가격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수출 및 해외진출을 위한 현지 마케팅 및 시장조사 등 해외서비스 다소비형 경제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임
- 사업서비스수지 적자는 주로 광고 및 시장여론조사 관련 서비스의 비중이 큼

3. 정책 동향

□ 서비스산업은 관련된 업종의 수가 많고 업종별로 각기 상이한

특성을 갖고 있어 체계적인 산업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이 제대로 인식되지 않아 2000 대 초반 이전에는 독자적인 정책이 수립되지 않았음

— 그러나 최근에는 제조업의 대안으로서 서비스산업의 역할이 부각되면서 산업정책의 대상으로 부상하였고, 이에 따라 서비스산업 관련 정책이 2004년 이후 늘어나다가 06년 말부터 보다 종합적인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이 발표되기 시작하였음

□ 2006년 말부터 발표되기 시작한 경쟁력강화종합대책의 배경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측면으로 요약될 수 있음

— 첫째, 그동안 제조업 위주로 지원되어 왔던 제도들 즉 조세 감면, 보조금 지급 등을 서비스산업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서비스산업중에서 유망업종들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서비스 무역수지 적자규모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신정부하에서 서비스산업 정책은 향후 한미 FTA 등 대외개방에 대비하여 전략적으로 국내 서비스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판단 하에 ‘Service-PROGRESS’라는 전략으로 추진되고 있음

— 정책 비전으로는 서비스산업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제조업과 동반성장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5년 후에는 민관의 지속적인 선진화 노력을 통하여 서비스산업

선진국으로 진입한다는 전망을 수립하였음

□ Service-PROGRESS 전략의 구체적인 방안은 1차적으로 2008년 4월 성장동력 확충과 서비스수지 개선을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Service PROGRESS I)으로 발표되었음

- 선진화방안은 서비스 수지 개선을 위해 관광 및 의료관광, 교육, 지식기반 서비스 관련 국내외 시장 개척 및 창출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구체적으로 외국 관광객의 국내 유치 확대,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및 운영 지원, 영어 공교육 내실화, 금융 등 수출지원 시스템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산업 차원에서는 골프, 마리나, 크루즈, 테마파크 등 고부가가치 레저관광산업을 육성할 계획임
- 의료관광 활성화 및 의료서비스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국내 의료기관 및 경제자유구역내의 외국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계획임

IV. 인천 서비스산업의 구조 및 특성

1. 산업구조의 변화

□ 지역내총생산을 산업별로 구분하여 각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인천 경제의 서비스화 현상이 2000년대 이후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광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31.2%인 반면, 서비스업 부문은 55.0%에 이르고 있음
- 광공업의 고용 비중은 2006년 30.6%인 반면 서비스업은 광공업 부문의 2배 이상인 65.0%인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인천의 산업별 부가가치 생산 및 고용 비중을 울산 을 제외한 5개 광역시와 비교해보면 인천의 제조업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산업별 1인당 노동생산성을 비교해보면 전국 평균을 100으로 보았을 때 제조업은 1996년 102.9에서 2006년 65.8로 크게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은 동기간 92.2에서 107.5로 증가하였음

산업별 1인당 노동생산성(전국 평균=100)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제조업	102.9	105.6	92.1	84.5	86.3	80.9	77.5	75.5	70.5	70.5	65.8
서비스	92.2	91.6	85.8	86.9	87.9	99.0	103.4	105.1	105.6	105.7	107.5

주: 2000년 기준년가격.

자료: 통계청 지역내총부가가치, 사업체기초통계조사.

2. 유형별 분석

- 인천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생산규모는 2000년 기준년 가격(기초가격)으로 85년 3조 1,757억원에서 2006년 16조 9,885억원으로 늘어나 동기간중 5배 이상 증가하였음
- 이에 따라 인천 서비스업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85년 3.3%에서 2006년 4.7%로 증가하였음

□ 서비스업 부문을 생산자서비스, 유통서비스, 사회서비스 및 개인서비스로 구분하여 인천 GRDP 대비 서비스 유형별 생산비중을 보면 생산자서비스와 유통서비스가 각각 19.3%, 19.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사회서비스는 10.7%로 나타났다

— 그러나 다른 광역시와 비교해보면 생산자서비스와 사회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고, 유통서비스는 부산과 함께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 인천 총고용에 대한 서비스 유형별 고용 비중을 살펴보면 유통서비스가 21.7%로 가장 크고, 생산자서비스는 10.9%로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고용비중의 변화 추이를 보면 유통서비스와 개인서비스는 최근 감소추세로 돌아섰고 생산자서비스와 사회서비스는 증가추세에 있음

□ 인천 서비스업 사업체의 규모별 분포를 보면 상시종사자 1~4명의 영세기업이 총사업체수의 87.8%를 차지하고 있으며 50명 이상의 대기업은 0.8%에 불과함

—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서비스업에서도 고용흡수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견기업 이상에 대한 기업유치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3. 산업연관분석

□ 각 지역별로 서비스 생산을 위한 중간투입구조를 비교해보면 인천 서비스업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중

간투입에 대한 의존도가 여타 지역보다 큰 반면 부가가치계수는 작은 것을 알 수 있음

□ 또한 서비스업의 중간투입비중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제조업 부문이나 서비스업 부문이나 서울·경기지역이 중간투입의 서비스화가 가장 높고 비수도권이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음

□ 각 지역별 제조업 생산활동을 위해 중간투입된 지역별 서비스업의 투입계수를 비교해보면 인천의 제조업이 서울·경기지역으로부터의 서비스 중간투입에 의존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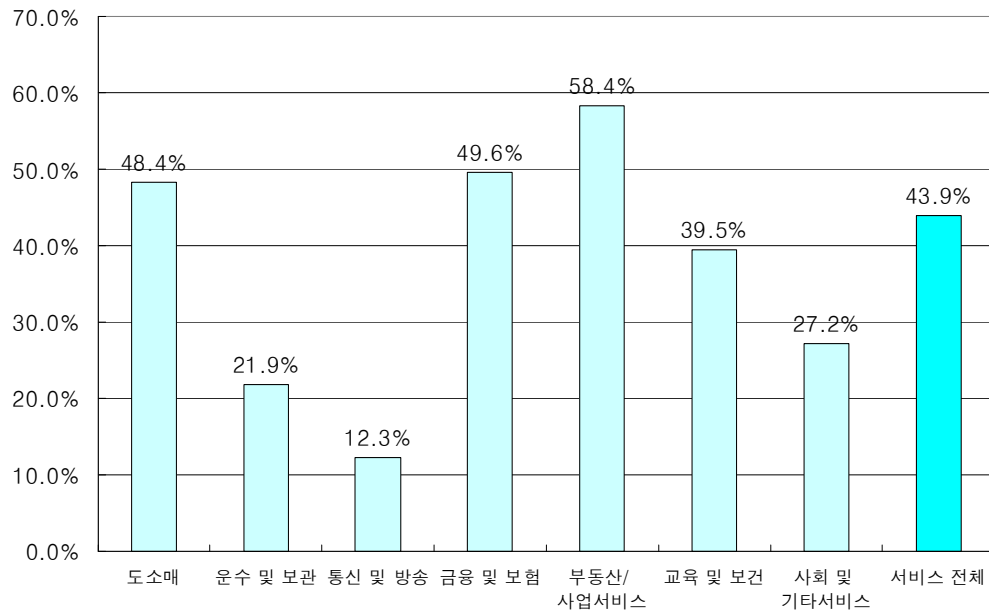
— 인천 제조업 생산을 위해 중간투입된 서비스중에서 서울·경기지역의 서비스가 28.8%인 반면 서울·경기지역의 제조업 생산에는 인천의 서비스가 2.2% 투입된 것에 불과함. 즉 제조업 부문에서 중간투입 서비스에 대한 상호의존도가 매우 불균형한 상태에 있음을 볼 수 있음

□ 인천 제조업내 중간투입된 서비스의 지역별 업종별 투입계수를 보면 인천 제조업이 서울·경기지역의 도소매, 금융 및 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에 의존하는 바가 큼

— 또한 비수도권지역에서는 주로 도소매업에 대한 의존도가 크고 수입부문에서는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의 의존도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인천 서비스업 중에서 금융 및 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등과 같은 생산자서비스의 타지역으로부터의 이입 및 수입에 대한 대외의존도가 크다는 것을 보여줌

인천 제조업내 투입 서비스의 업종별 대외 의존도(2003)



주: 업종별 이입 및 수입 투입계수의 합을 업종별 총중간투입계수로 나눈 것임.

자료: 한국은행 인천본부.

V. 종합평가 및 정책과제

1. 종합평가

□ 선진국의 경제의 서비스화는 19세기 후반부터 시작되었으며, 미국이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1940년대 말 이미 서비스업의 고용비중이 50%를 상회했음

— 이러한 서비스업의 발전은 제조업 발전에 따른 기능 분화 및 전문화, 첨단 기기로부터 유발되는 서비스의 확대,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금융화·정보통신기술화에 따른 독자적 산업화 등에 의해 가속화되었음

□ 이러한 선진국의 경험에 비해 인천 서비스업의 발전과정은 제조업의 이탈 또는 고용흡수력 약화로 인해 저부가가치의 유통 및 개인서비스가 비대하게 됨으로써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음

— 또한 서비스업을 연계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비용절감 차원에서 단순업무지원을 하청업체에게 아웃소싱하고 있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통해 생산성을 개선하려는 전략은 미흡함

— 이는 산업연관분석에서 보았듯이 제조업과 서비스업간의 연계가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 인천 서비스산업의 발전 비전은 제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는 기본적으로 제조업 수출 주도의 지역경제의 틀을 전환시키는 의미를 가짐

□ 서비스 유형별로는 제조업과의 연계 발전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생산자 서비스에 대한 R&D 투자와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함

— 생산자 서비스는 다른 서비스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아 서비스산업 자체의 생산성을 견인할 뿐만 아니라 중간투입요소로서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함

2. 정책과제

(제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자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 스스로 서비스 수요를 창출할 만한 역량이 되지 못하는 인천 중소기업들에 대해 공공부문의 지원을 기반으로 생산자서비스 수요를 집적시켜 제조업체와 서비스업체를 연계해주는 지원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 이러한 지원체계는 제조업체들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체의 수요기반 확보와 경쟁력 향상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지원해야 될 생산자 서비스의 구체적인 업종은 인천 제조업체들로부터 수요조사를 통해 선별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생산자 서비스는 기업의 내부기능을 외부로부터 지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동종의 중소기업들로부터 필요한 서비스의 유형화가 가능함

(IT·BT 연계형 생산자서비스 개발)

□ 제조업체들의 IT 활용은 IT아웃소싱을 통해 기업의 핵심역량에 효율적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경쟁력을 확보해주고 동시에 IT서비스업의 내수 확대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함

— IT서비스업은 기본적으로 고부가가치산업이며 동시에 고용흡수력이 큰 산업임

□ IT서비스업의 수요 창출을 위해서는 IT를 활용하여 부가가치와 노동생산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도소매, 금융서비스, 사업서비스업 등을 육성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IT서비스 활용도는 도소매업의 성장 둔화와 사업서비스업의 성장 정체로 인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노동생산성(1인당 부가가치)도 서비스기업들의 영세성으로 인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 바이오산업은 글로벌 인재의 이동이나 바이오 물질 및 제품의 수출입이 많은 글로벌 산업으로 이와 관련된 국제 비즈니스에 특화할 수 있다면 바이오산업 육성을 통한 서비스업 수요확대에 기여할 것임

—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국제바이오비즈니스센터(가칭)를 설립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국내 전체의 국제바이오비즈니스서비스 수요를 흡수한다면 인천 바이오클러스터의 위상은 그만큼 높아질 수 있음

— 주요 바이오 비즈니스 서비스로는 기술상업화, 시장 조사, 마케팅 전략, 타당성 분석, 특허, 인허가, 수출입 절차 컨설팅 등 국내 바이오의약품의 해외 진출과 관련된 지원 서비스와 바이오 원료의 수급 및 제품의 분석, 평가, 검증 및 품질 보증 등의 서비스 등을 들 수 있음

— 또한 바이오산업에 특화된 전시, 컨벤션 등을 통해 국내외 네트워킹 센터로서 정보교류 및 인적 교류의 중심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음

(효율적인 서비스산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서비스산업의 효율적인 발전과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각기 다

른 이해관계를 총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종합지원네트워크가 필요함

—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 제조업과 서비스업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생산자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제조업에서의 서비스 관련 수요에 대한 조사작업과 함께 이에 대한 DB 구축을 실시함

— 또한 이 네트워크는 중소기업들이 개별 차원에서는 획득할 수 없는 정보, 지식, 노하우, 기술 등을 아웃소싱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이 됨

□ 대부분의 서비스업종의 품질과 경쟁력이 전문 인력의 역량에 달려 있으므로 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함

— 최근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생산자서비스산업으로서 컨벤션 산업 등은 아직 충분한 교육콘텐츠와 인프라가 구비되어 있지 않으므로 서비스 분야별 전문대학원의 설립이나 기존 교육훈련기관의 신규 과정 신설 등이 요구됨

— 특히 인천경제자유구역은 국제도시의 건설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국내에 유입되는 외국방문객들과의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외국어 교육 및 외국 문화에 대한 교육과 정도 필요함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990년대 이후 인천 경제의 산업구조를 보면 부가가치 생산이나 고용 측면에서 광공업 부문의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서비스산업 부문은 증가하는 ‘경제의 서비스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2006년 기준 인천 서비스업 부문(전기, 가스, 수도 및 건설업 제외)의 부가가치 생산비중은 55.0%, 고용 비중은 65.0%로 광공업 부문의 부가가치 생산비중 31.2%, 고용 비중 30.6%보다 현저히 큰 것으로 나타났음
 - 광공업 부문의 부가가치 생산규모(2000년 기준년 가격, 기초가격 기준)는 90년대 중반 이후 9조원대에 머물러 있는 반면 서비스업 부문은 92년 광공업 부문의 생산규모를 넘어선 이후 2000년대 초반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2006년에는 17조원에 달하고 있음
- 경제의 서비스화는 인천 경제만의 독특한 현상은 아니며, 우리나라의 서울을 비롯해 전세계 선진 도시들의 경제가 발전하면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산업구조의 변화임
 - 선진 도시의 서비스업 비중이 늘어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교육, 의료, 금융, 문화, 통신, 쇼핑, 관광, 레저 등에 대한 가계소비가 늘어나기 때문임
 - 또한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대하면서 사회복지에 대한 서비스 수요도 급증하였음

— 제조업 부문에서는 직접적인 생산 및 조립과정 이외에 연구개발, 디자인, 마케팅, 유통, 컨설팅, 회계 등의 기능과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면서 이러한 기능들이 전문적이고 독자적인 산업영역으로 발전하였음

— 또한 정보통신 및 방송기술의 고도화로 금융, 통신, 소프트웨어, 문화콘텐츠 등의 서비스업 부문이 글로벌 교역의 대상이 되면서 그 비중이 더욱 확대되는 추세임

□ 최근에는 전세계적으로 ‘고용없는 성장’과 ‘성장률 둔화’의 특징을 보이고 있는 제조업에 대한 대안으로서 서비스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 미국이나 호주는 진입 자유화 등 규제 완화와 서비스시장 개방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여 서비스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서비스부문의 혁신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일본에서는 2004년 5월 고이즈미 정부가 발표한 ‘신산업 창조전략 2005’를 계기로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제고전략을 수립한 이래 지속적으로 서비스산업의 혁신을 위해 세제 혜택 및 규제 완화 등의 정책을 도입하고 있음

— 중국은 2007년 2월 ‘서비스산업의 발전가속에 관한 몇가지 의견’을 발표한 이후 지역별 서비스산업 육성전략을 마련하고 서비스분야에서의 적극적인 대외개방 등을 포함한 다양한 육성방안을 제시하였음

—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의료서비스와 관광사업을 결합한 의료관광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2006년 말부터 종합적인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세 차례에 걸쳐 범정부 차원의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08년 신정부하에서도 한미 FTA 등 대외개방에 대비하여 ‘Service-PROGRESS’라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유형별 분석, 타 광역시와의 비교 분석, 산업연관분석 등을 통해 인천 서비스산업의 특성을 파악하고, 향후 제조업과의 연계를 기반으로 서비스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과제 및 인프라 구축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함

— 특히 서비스산업의 육성이나 정책적 지원에 대한 강조가 마치 제조업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되어서는 안되며, 오히려 서비스산업은 시민들이 보다 높은 생활 수준을 누리고 기업들이 보다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략적 기반산업이라는 인식하에 정책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인천시에서도 지식기반 서비스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식서비스산업지원센터를 설립하였으며, 대표적인 지식기반 서비스업으로서 디자인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II. 서비스산업의 정의 및 특성

1. 정의 및 분류

(서비스산업의 정의)

□ 서비스산업은 도소매, 음식, 숙박시설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서부터 철도나 도로 등 운수 관련 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부
동산, 법무나 회계와 같은 사업서비스, 통신 및 방송, 교육, 의
료·보건, 영화, 연극, 음악, 스포츠 등 문화·오락서비스 등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한 업종을 포괄하고 있어 한 마디로 정
의하기가 어려운 부문임

— 또한 동일 업종 내에서도 밸류 체인에 따라 또는 특정한
서비스 행위에 따라 각기 다른 산업적 특성을 갖기도 하
고, 경제규모가 커지고 소득 수준이 증가하고 고령화 사회
에 진입하면서 새로운 서비스업종이 출현하기도 함

□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산업을 ‘무형의 경제재를 생산, 공급 및
판매하는 산업’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농업, 임업, 어업 등
1차 산업, 광업 및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사업, 건설업 등
사회간접자본 관련 산업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을 지칭하는
것으로 함

— 서비스(service)의 사전적 정의는 ‘생산된 재화를 운반·배
급하거나 생산 또는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것’으
로 되어 있음(통계개발원 2008)

— 건설업은 생산된 재화가 유형재의 성격을 띠고 있고, 전기,

가스, 수도업종은 거대 생산설비의 유형 재화를 이용해야만 생산이 가능하므로 서비스업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서비스산업을 1차(primary), 2차(secondary) 이외의 3차(tertiary) 산업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1930년대부터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고정민 2008).

(서비스산업의 분류)

□ 서비스산업은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주체, 서비스의 기능 또는 대상, 정책 목표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산업의 구조적 변화와 서비스업과 제조업간의 연계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수요자에게 공급되는 서비스의 기능적 성격에 따라 생산자서비스, 유통서비스, 개인서비스 및 사회서비스로 구분하고자 함

- 이러한 분류방식은 Singelmann(1978)이 처음 시도한 이래 많은 연구에서 채택되고 있어 연구 성과의 비교라는 측면에서도 이점이 있음(마남진 · 고경철 2004; 김주훈 외 2006; 김현정 2006)

□ 생산자 서비스(producer services)*는 컨설팅, 광고, 법률, 회계, 연구개발, 부동산 및 임대업, 금융업, 보험업, 통신업 등 기업 수요에 특화된 서비스업으로 생산자의 생산활동을 촉진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음

* 생산자서비스는 사업 서비스(business services) 또는 기업지원 서비스라고도 함

— 생산자 서비스 기능은 전통적으로 일정한 사내 부서에서 담당하다가 점차 전문화하면서 독립된 기업으로부터 조달(outsourcing)받게 되면서 나타나게 되며, 이 결과 서비스를 중간재로 투입하는 비중이 증가하게 됨

— 이러한 경향은 제조업의 비용절감 압력에 따른 것이며,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의해 가속화되는 추세임

□ 유통 서비스(distributive services)는 도소매업, 운수업, 창고업 등으로 제품이 생산자에서 최종 수요자에게 도달되기까지의 유통기능을 담당하며, 이 기능 역시 점차 전문 물류기업으로 독립화되는 경향을 보임

— 유통 서비스의 비중은 경제성장과 유사한 수준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전체 서비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사회 서비스(social services)는 표준산업분류상의 공공행정, 국방, 교육 및 의료보건, 사회복지, 종교, 비영리기관, 우편 등 공공성이 큰 사회적 기능을 담당함*

* 사회서비스는 사업서비스업의 인력공급, 고용알선, 오락문화운동 관련 서비스의 도서관, 박물관, 식물원,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의 하수폐기물 처리, 개인 간병인, 가사서비스업의 가사도우미 등도 포함하지만, 통계분류상의 어려움으로 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N, O, P, U에 해당하는 업종을 사회서비스로 함

— 고령화, 저출산에 따른 가족구성원 수의 감소,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확대 등의 요인에 따라 보육, 수발, 간병, 가사 등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

나고 있음

□ 개인 서비스(personal services)는 음식숙박업, 문화예술, 수리업, 세탁업, 영화 등 최종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서비스임

— 소득 및 소비 패턴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업종이 창출되고 있으며, 개인의 '삶의 질' 수준과 연관성이 큼

— 개인서비스도 유통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안정적인 비중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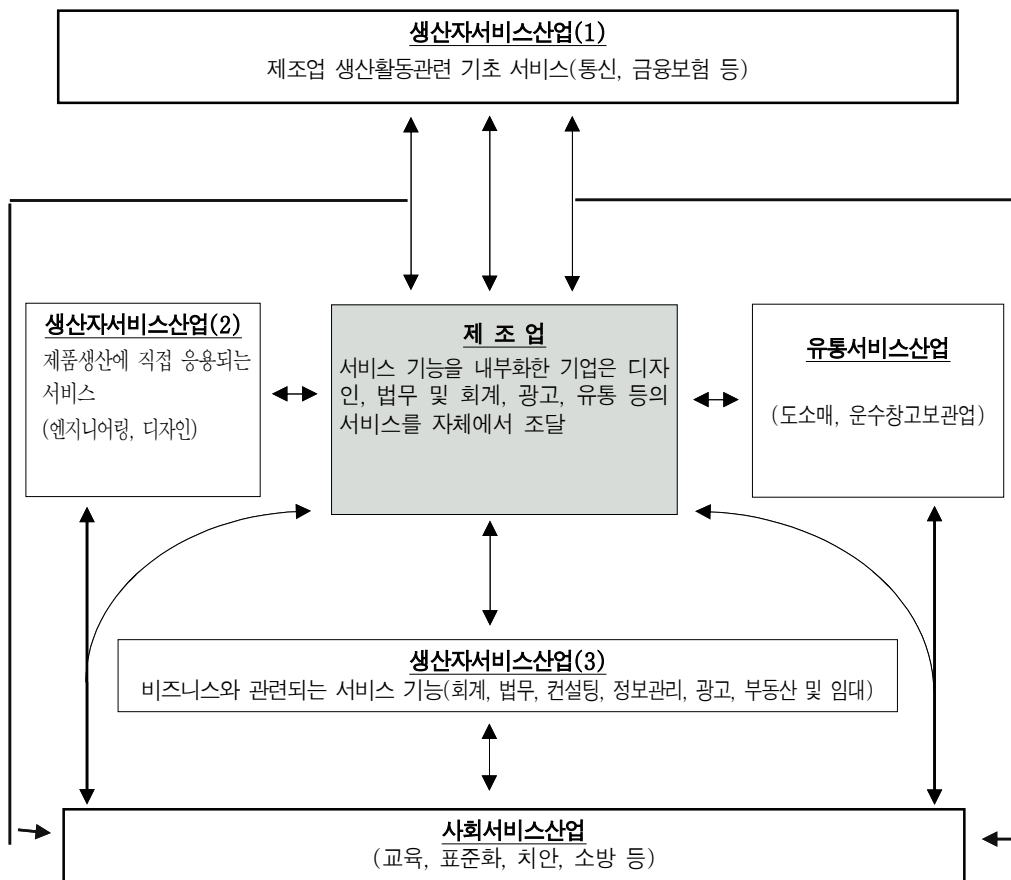
서비스산업의 분류

	표준산업분류 (대분류, 8차 개정)	산업연관분석	
		통합대분류(28부문)	통합중분류(77부문)
생산자 서비스	J. 통신업	22. 통신 및 방송	66. 통신 및 방송
	K. 금융 및 보험업	23. 금융 및 보험	67. 금융 및 보험
	L. 부동산 및 임대업	24.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68. 부동산
유통서비스	M. 사업서비스업		69. 사업서비스
	G. 도매 및 소매업	19. 도소매	63. 도소매
	I. 운수업	21. 운수 및 보관	65. 운수 및 보관
사회서비스	N.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70. 공공행정 및 국방
	O. 교육서비스업	25. 공공행정 및 국방	71. 교육 및 연구
	P.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26. 교육 및 보건	72. 의료, 보건 및 사회보장
개인서비스	U. 국제 및 외국기관		
	H. 숙박 및 음식점업		
	Q.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	20. 음식점 및 숙박	64. 음식점 및 숙박
	R.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27. 사회 및 기타서비스	73. 문화오락서비스
	S. 가사서비스업		74. 기타서비스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 이러한 분류에 따르면 생산자서비스와 유통서비스는 대체적으로 각각 제조업의 생산활동 및 유통활동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며, 사회서비스는 제조업 종사자들의 교육·훈련 및 복지 등에 연계되어 있음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연관관계



자료: 신창식·조한상(2003).

2. 산업적 특성

(무형 경제재)

- 서비스산업의 가장 큰 특징은 공급되는 서비스가 농림어업이나 제조업 등의 생산물과 달리 무형적(intangible) 소비의 대상으로서 구매 전에 보거나 만질 수 없으며, 재고의 형태로 또는 향후에 소비할 목적으로 저장할 수 없음
- 또한 서비스는 제조업과 달리 대량생산이 불가능하고 품질 수준도 표준화되기 어려워 적정가격 설정과 수요 확대에 제약요인이 있음

(최종 소비재)

- 서비스산업은 최종 소비재로서 경제 성장 및 소득 증가에 따라 수요가 확대되며, 서비스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제조업부문보다 크게 나타남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e-비즈니스의 확산으로 서비스산업의 글로벌화가 이루어지면서 서비스 수요가 확대되는 경향도 있음
- 최종 소비재로서의 서비스 수요가 늘어나면서 제조업의 부가가치 창출구조도 서비스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서비스산업이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매출액 증대 측면에서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줌
- 예를 들어 컴퓨터, 휴대폰, 자동차, 의료용 로봇 등 첨단 제

품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오는 서비스의 매출액 규모가 급증하고 있음

- 따라서 산업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분리하지 말고 양자를 하나의 산업적 범주에 넣어 산업정책을 추진해야 함

(중간투입재)

□ 물류, 통신, 금융, 보험, 부동산 개발, 디자인, 광고 등과 같은 서비스는 아웃소싱(outsourcing)을 통해 제조업의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중간투입재로서 소비됨

- 이는 앞서 언급한 분류방식에 따르면 생산자서비스 및 유통서비스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산의 우회도를 증가시켜 제조업과 서비스업간의 산업연관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함

- 특히 제조업중에서도 정보통신기술 또는 바이오기술 관련 기업들이 비즈니스 서비스를 중간투입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첨단 산업이 발전한 선진국의 경우에 서비스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남

(공공재)

□ 교육, 의료, 보건, 사회복지사업 등 주로 사회서비스에 속하는 업종들은 공공성이 매우 강한 서비스산업으로서 인구 고령화, 여성경제활동인구 증가 등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함께 빠르게 확대되어 가는 추세임

□ 사회서비스는 개인의 건강, 인적 자본, 사회안전망 등과 직결되기 때문에 노동생산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득재분배의 역할도 수행함

— 또한 이에 속하는 업종들은 취업취약계층이 접근하기 용이하고 고용흡수력이 상대적으로 커서 일자리 창출면에서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

(인력의존적 산업)

□ 제조업 부문은 생산성 증대에 따라 노동수요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서비스산업은 제조업보다 인력 의존적인 특성을 나타냄

— 특히 서비스업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숙련된 전문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부가가치의 생산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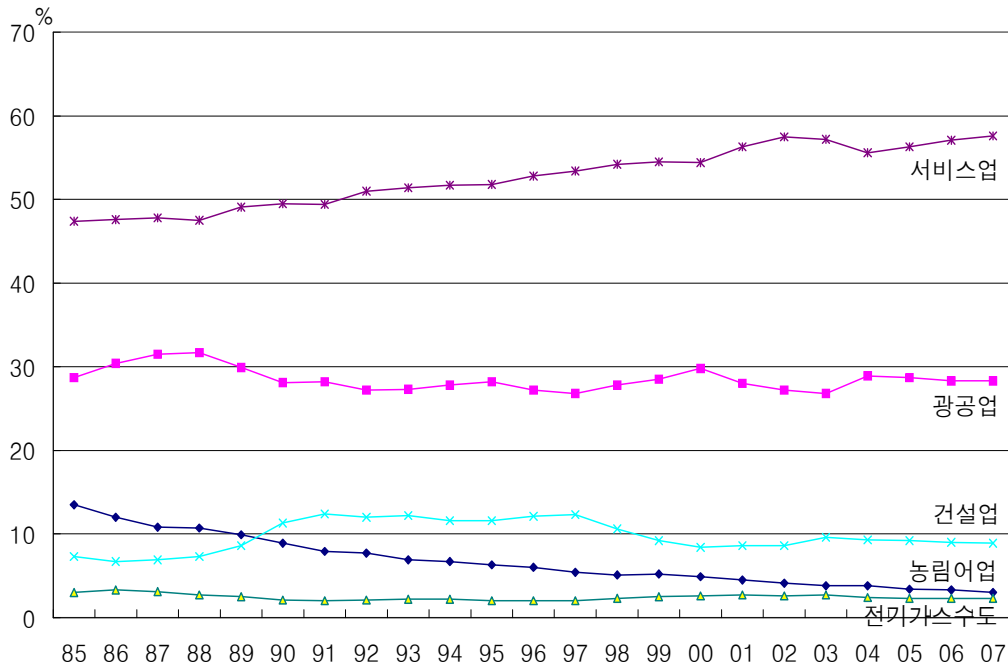
Ⅲ. 국내 서비스산업의 구조 및 문제점

1. 현황 및 구조

□ 국내 산업별 부가가치 생산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광공업은 80년대 후반 30%를 약간 상회한 기간 이후에는 27~29%대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서비스산업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여 92년에는 50%를 넘어섰고 2007년에는 57.6%에 달함

— 우리나라도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경제의 서비스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산업구조가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줌

국내 산업별 부가가치 생산비중 추이(1985~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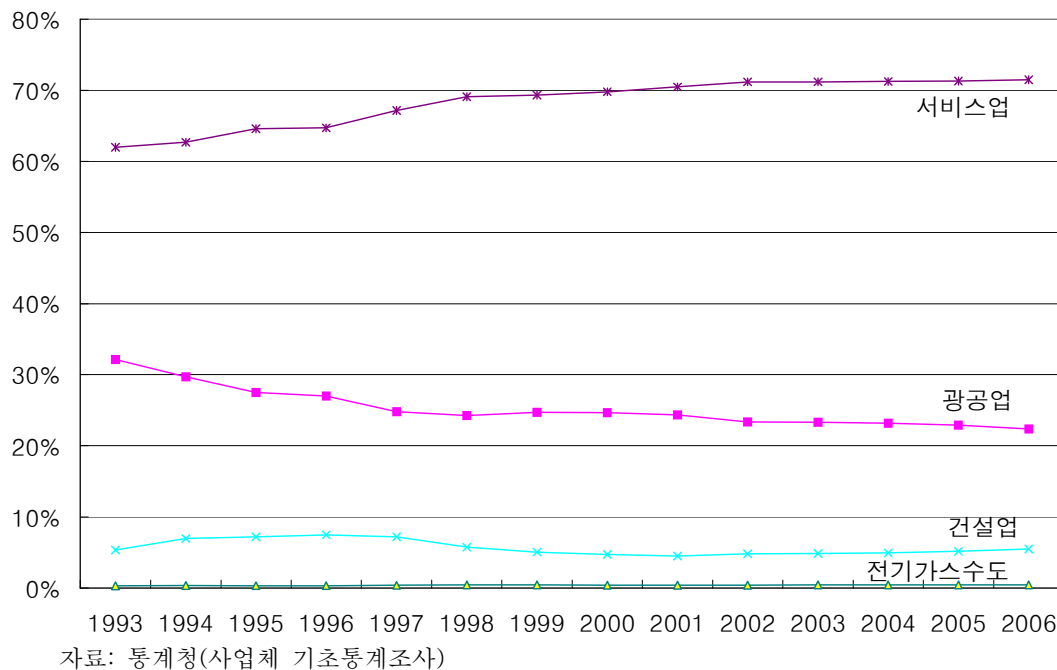
주: 2000년 기준년가격.

자료: 한국은행.

□ 국내 산업별 고용비중도 광공업은 1993~2006년 기간중 32.1%에서 22.4%로 9.7%포인트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은 동기간중 62.0%에서 71.5%로 9.5%포인트 증가하였음

— 2000년대 들어 서비스업의 고용규모는 광공업의 3배 이상으로 늘어났음

국내 산업별 고용비중 추이(1993~06)



□ 서비스 유형별 취업구조를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전반적으로 생산자서비스와 사회서비스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은 편임

— 생산자 서비스의 경우 산업구조 고도화 및 지식기반 서비스 수요 확대에 의해 사업서비스업, 금융업, 통신업 등을 중심으로 부가가치 및 고용 비중이 모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아직 선진국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사회서비스의 고용 비중은 선진국 평균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함

□ 반면 유통 및 개인서비스의 고용 비중은 대체적으로 선진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유통 서비스 중에서 도소매업은 대형 할인점의 등장 등 구조조정의 여파로 부가가치 및 고용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운수업은 부가가치 및 고용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 음식숙박업, 세탁업 등 일상 생활에 필요한 개인 서비스는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고 있음

서비스 유형별 취업구조의 국제 비교(2003)

(단위: %, % 포인트)

	유통서비스	생산자서비스	사회서비스 ²⁾	개인서비스 ²⁾	계
선진국 ¹⁾ 평균(A)	20.3	16.8	24.1	13.2	74.4
한국(B)	23.5	11.2	12.6	16.2	63.5
B-A	+ 3.2	-5.6	-11.5	+ 3.0	-10.9

주: 1) 미국, 영국, 프랑스(2002년), 이탈리아, 일본

2) 일본을 제외한 4개국 평균

자료: OECD, STAN 데이터(김현정(2006)에서 재인용)

2. 문제점

(낮은 생산성)

□ 국내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40%, 프랑스의 52%, 일본의 54% 수준에 불과하여 국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저하시킴

서비스산업의 국제 비교(2005)

(단위: %, 억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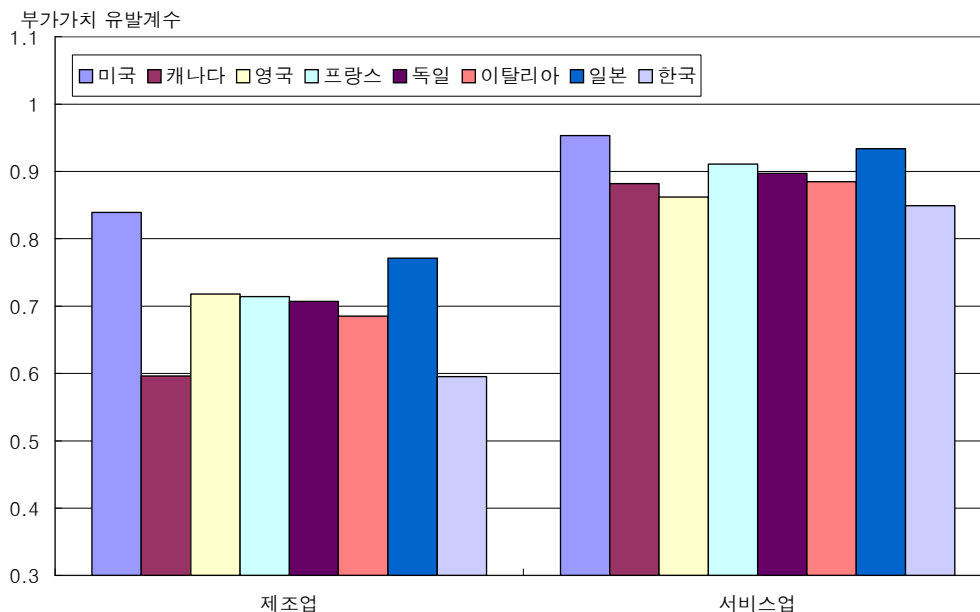
	한국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OECD 평균
GDP 비중	57.6	69.9	76.8	75.9	77.0	69.7	68.9
고용비중	66.7	67.6	78.6	76.5	73.9	67.6	69.4
서비스 수지	-206	-279	728	448	132	-520	51.4
노동생산성	100	187.6	252.5	154.6	197.8	163.8	-

주: 한국 통계는 2007년 자료임.

자료: 기획재정부 외(2008).

- 또한 서비스업의 부가가치유발계수도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

주요 국가의 산업별 부가가치 유발계수(2000)



주: OECD의 2000년 기준 Input-Output database를 이용함

자료: OECD, 이건우(2008)

-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것은 서비스업 중에서도 성장잠재력이 높고 좋은 일자리가 많은 지식기반 서비스업 비중은 작은 반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등 부가가치가 낮은 부문에 고용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임

- 제조업의 생산성과 직결되는 생산자서비스의 부가가치 생산비중을 보면 미국이 35.2%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24.6%에 불과함

생산자서비스의 부가가치 생산비중 국제 비교(2003)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부가가치 생산비중	24.6	35.2	29.3	33.3	33.2

주: 총부가가치 대비 생산자 서비스의 부가가치 비중임
자료: OECD, STAN 데이터, 최용재 외(2007)에서 재인용.

- 또한 자본 규모가 영세한 자영업자의 비중이 크고 서비스부문의 R&D 투자가 미흡하여 서비스업 생산성 제고의 제약조건으로 작용함

- 대한상공회의소의 ‘국내 지식서비스산업 경쟁력 실태 및 애로요인’ 조사(2007.11)에서도 업계의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자본력(27.7%)과 R&D 등 서비스 개발능력(20.1%)이 제시되었음

- 기업의 영세성은 국내 시장 규모가 작은 것과는 연관되지 않, 기본적으로 서비스업종이 기업형이라기보다는 자영업 등 생계형 위주이기 때문임

- 뿐만 아니라 과거 정부 지원정책이 주로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서비스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이 부족한 데다 경쟁을 제한하는 진입장벽 및 영업규제는 많아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한국과 미국의 IT서비스업의 R&D 지출액 비교

(단위: 백만원, 십억원, %)

		2001	2002	2003	2004	평균증가율 (2001~04)
한국	R&D 지출액(십억원)	280	262	254	325	5.1%
	1인당 R&D 지출액(백만원)	2.02	1.76	1.27	1.51	-9.4%
미국	R&D 지출액(십억원)	14,304	16,800	20,832	22,368	16.2%
	1인당 R&D 지출액(백만원)	7.49	7.87	9.60	11.42	15.1%

자료: 임준(2006), "IT서비스산업의 공정경쟁과 수익성 제고"(현대경제연구원(2008)에서 재인용).

(서비스업 수지 적자)

□ 국내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은 서비스 수지 적자로 나타나 2007년 205.7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음

— 서비스업 수지 적자 규모는 2005년부터 대폭 늘어나 2005년부터 08년 상반기까지 적자 누계가 총 625.3억 달러로 집계되었음

— 국내 서비스산업의 세계수출시장 점유율은 2004년 1.2%로 미국의 16.3%, 영국의 12.1%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 적자서비스 부문은 주로 여행, 사업서비스 및 특허권 등 사용료 3개 부문이며, 특히 개인의 생활수준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직결되는 교육, 관광, 사업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적자가 확대되고 있음

□ 2007년의 경우 유학연수수지 적자가 49.6억 달러이며 일반여행수지 적자는 101.3억 달러에 이름

- 이는 국내 여행서비스의 가격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수출 및 해외진출을 위한 현지 마케팅 및 시장조사 등 해외서비스 다소비형 경제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임

□ 사업서비스수지 적자는 주로 광고 및 시장여론조사 관련 서비스의 비중이 큼

- 국내 기업들의 사업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늘고 있으나 국내 공급수준이 낮아 해외 서비스의 이용이 확대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생산자서비스의 수출비중은 우리나라가 31.0%로 영국의 65.1%, 일본의 47.5% 등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임

서비스 수지 추이

(단위: 억 달러)

		2000	2005	2006	2007	2008. 1~6.
	여행수지	-3.0	-96.0	-130.6	-150.9	-57.9
적자	사업서비스수지	-31.3	-61.2	-71.7	-83.8	-58.1
서비스	특허권 등	-25.3	-26.5	-26.0	-31.6	-18.9
부문(A)	사용료수지	-25.3	-26.5	-26.0	-31.6	-18.9
	소계	-59.6	-183.7	-228.4	-266.3	-134.9
	운수 수지	26.4	37.3	26.7	38.9	29.5
흑자	금융서비스수지	5.1	14.2	20.0	34.4	15.8
서비스	건설서비스수지	0.1	1.0	1.3	1.2	1.4
부문(B)	소계	31.7	52.5	48.0	74.5	46.7
	기타 서비스수지(C)	-0.5	-5.4	-9.2	-13.9	-5.2
	총서비스 수지(A+B+C)	-28.5	-136.6	-189.6	-205.7	-93.4

주: 기타 서비스수지는 보험, 개인·문화·오락, 컴퓨터 및 정보, 통신, 정부서비스 등임.
 자료: 한국은행, 김민우 외(2008).

생산자서비스의 수출 비중 국제 비교(2005)

(단위: %)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독일
수출 비중	31.0	47.1	47.5	65.1	47.2

자료: IMF, 최용재 외(2007)에서 재인용.

3. 정책 동향

(정책 수립 배경)

- 서비스산업은 관련된 업종의 수가 많고 업종별로 각기 상이한 특성을 갖고 있어 체계적인 산업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이 제대로 인식되지 않아 2000 대 초반 이전에는 독자적인 정책이 수립되지 않았음
- 그러나 최근에는 제조업의 대안으로서 서비스산업의 역할이 부각되면서 산업정책의 대상으로 부상하였음
 - 전세계적으로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르고 시장 규모도 매우 크다는 점에서 육성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 또한 제조업의 고용흡수력이 점차 낮아지고 ‘고용 없는 성장’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업의 고용 창출 능력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음
- 이에 따라 서비스산업 관련 정책이 2004년 이후 늘어나다가 06년 말부터 보다 종합적인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이

발표되기 시작하였음

- 06년 12월, 07년 7월 및 12월 세 차례에 걸쳐 범정부 차원의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이 수립된 데 이어, 08년 신정부하에서도 서비스산업과 관련된 범정부 종합대책이 발표되었음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 2006년 말부터 발표되기 시작한 경쟁력강화종합대책의 배경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측면으로 요약될 수 있음

- 첫째, 그동안 제조업 위주로 지원되어 왔던 제도들 즉 조세 감면, 보조금 지급 등을 서비스산업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서비스산업중에서 유망업종들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서비스 무역수지 적자규모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06년 12월에 발표된 1단계 대책은 제조업과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 개선, 세제 및 금융지원, 서비스업 인적자원 양성체계 개선, 의료서비스, 관광, 교육, 게임 등 유망서비스업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 등 총 159건의 현황과 문제점을 나열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 07년 7월에 발표된 2단계 대책에는 골프, 마리나 등 레저 분야

의 해외 소비를 국내로 전환하기 위해 골프장 공급 지원, 마
리나 개발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는 내용과 함께 서비스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RFID 부착
의무화 등 다양한 정책이 제시되었음

□ 07년 말의 3단계 대책은 문화·디지털 콘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중심으로 수립되었음

— 아시아 문화콘텐츠산업의 허브 구축을 목표로 글로벌 경쟁
력 있는 문화콘텐츠 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문화산업
육성 기반을 확충하고, ‘창작, 제작, 유통, 수출’ 등 가치사
슬 전 단계에 걸쳐 애로 해소 및 경쟁력 강화대책을 수립
하기로 하였음

— 또한 문화클러스터 육성, M&A 활성화 등 세계적으로 경쟁
력 있는 문화콘텐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환경을 조
성하기로 하였음

— 디지털 콘텐츠산업 면에서는 ‘세계3대 디지털 콘텐츠 강국’
이 될 수 있도록 기업의 R&D 활동 지원 강화 방안 및 글
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였음

□ 이러한 종합대책은 전반적으로 정책 방향이 합리적으로 설정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제조업에서 논의되던 정책을 그대
로 서비스산업에 적용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의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음

— 또한 서비스산업을 총괄하는 산업정책 비전이나 체계 없이
20개 정부기관이 주요 경제단체, 관련 업계,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업종별 정책을 취합하는 수준에서 발표되었다는 점도 정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음

(신정부의 서비스산업 정책)

- 신정부하에서의 서비스산업 정책은 향후 한미 FTA 등 대외개방에 대비하여 전략적으로 국내 서비스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판단 하에 'Service-PROGRESS'*라는 전략으로 추진되고 있음

* PROGRESS는 생산성 제고, 규제 합리화, 개방, 세계적 수준, 경쟁, 경영환경 개선, 전문화, 규모의 경제 등 주요 추진 목표의 영문 두음을 조합한 것임

- 정책 비전으로는 서비스산업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제조업과 동반성장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5년 후에는 민관의 지속적인 선진화 노력을 통하여 서비스산업 선진국으로 진입한다는 전망을 수립하였음
- Service-PROGRESS 전략의 구체적인 방안은 1차적으로 2008년 4월 성장동력 확충과 서비스수지 개선을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Service PROGRESS I)으로 발표되었고, 이후 서비스산업의 규제합리화 방안(Service PROGRESS II)과 서비스산업의 성장동력화 방안(Service PROGRESS III)이 각각 발표될 계획임

Service-PROGRESS의 추진전략

구분	영문	내용
생산성 제고	Productivity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규제 합리화	Regulatory Reform	경쟁제한적 규제 발굴 및 개선
개방	Openness	해외 선진기법의 도입 및 발전
세계적 수준	Global Standard	선진국 수준의 서비스산업 기반 마련
경쟁	Rivalry	서비스산업의 체질 강화
경영환경 개선	Environmental Improvement	제조업과의 차별 해소 및 서비스친화적 경영환경
전문화	Specialization	서비스산업의 효율성 제고
규모의 경제	Scale Economy	서비스산업 수익 향상 및 비용 절감

자료: 기획재정부 외(2008).

□ 선진화방안은 서비스 수지 개선을 위해 관광 및 의료관광, 교육, 지식기반 서비스 관련 국내외 시장 개척 및 창출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구체적으로 외국 관광객의 국내 유치 확대,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및 운영 지원, 영어 공교육 내실화, 금융 등 수출지원 시스템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산업 차원에서는 골프, 마리나, 크루즈, 테마파크 등 고부가가치 레저관광산업을 육성할 계획임

— 의료관광 활성화 및 의료서비스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국내 의료기관 및 경제자유구역내의 외국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계획임

— 또한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에 대한 규제도 개선하고, u-러닝, 방송-통신 융합 콘텐츠, 국방훈련용 시뮬레이션, CG기반 디지털영상 등 문화콘텐츠산업을 육성할 계획임

— 서비스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지원 확대, 해외시장 개척 지원, R&D 투자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할 계획임

□ 향후 규제합리화 방안에서는 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진입규제와 영업규제를 합리화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임

— 진입규제는 교육, 의료, 법률 등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철폐하여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불합리한 관행 및 규제를 검토하여 기업과 소비자의 체감 만족도를 제고할 것으로 보임

□ 성장동력화 방안은 서비스산업의 성장동력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디자인, 컨설팅, 컨벤션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 있는 서비스산업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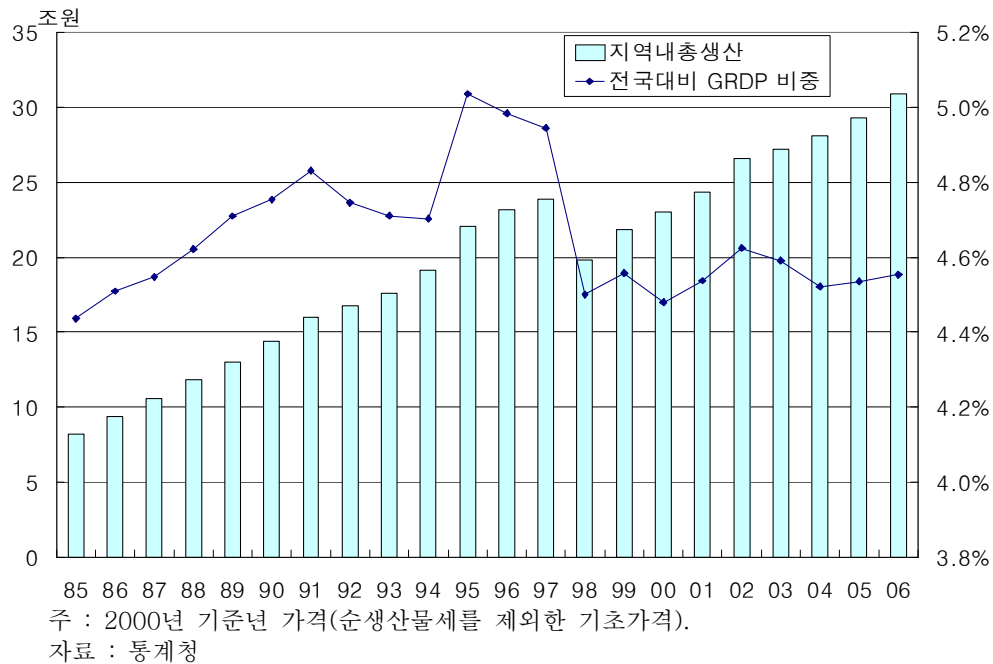
IV. 인천 서비스산업의 구조 및 특성

1. 산업구조의 변화

□ 인천의 지역내총생산은 90년대 말 외환위기로 인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이후 점차 회복세를 보여 2006년에 30조 8,829 억원(2000년 기준년 가격, 기초가격)을 기록하였음

— 그러나 인천의 전국 대비 지역내총생산 비중을 보면 90년대 중반 5%대에 진입하기도 하였으나 97년 4.9%에서 98년 4.5%로 큰 폭으로 떨어진 이후 최근에는 4.5~4.6%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즉 인천지역의 상대적 경제규모는 외환위기의 충격 이후 다소 위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인천 지역내총생산 및 전국대비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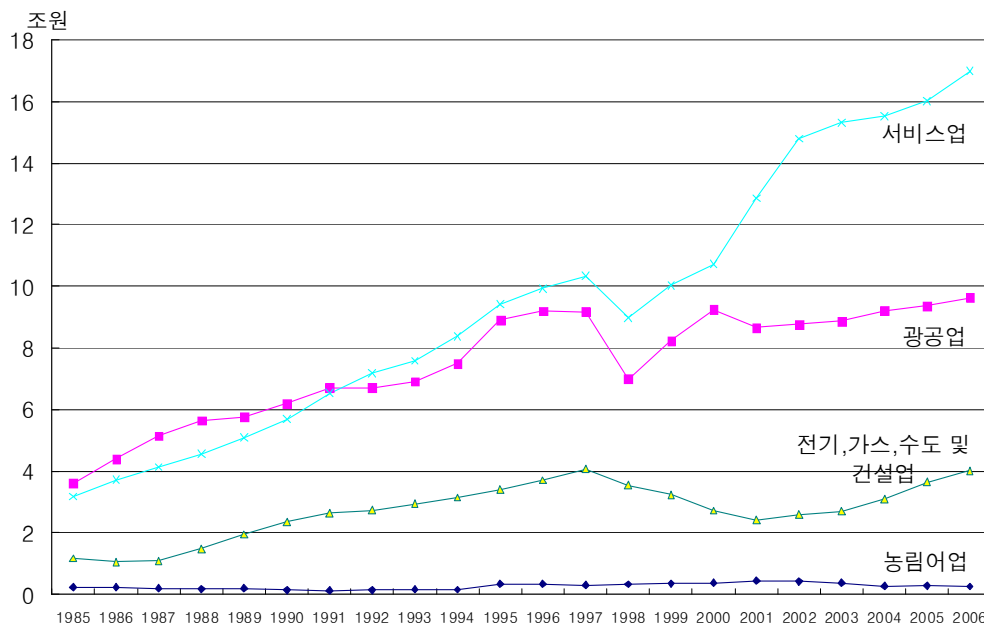


□ 지역내총생산을 산업별로 구분하여 각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인천 경제의 서비스화 현상이 2000년대 이후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광공업 부문의 생산규모는 90년대 중반 이후 9조원대에 머물러 있는 반면 서비스업은 92년 광공업의 부가가치 생산 규모를 넘어선 이후 2000년대 초반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2006년에는 17조원에 달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광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31.2%인 반면, 서비스업 부문은 55.0%에 이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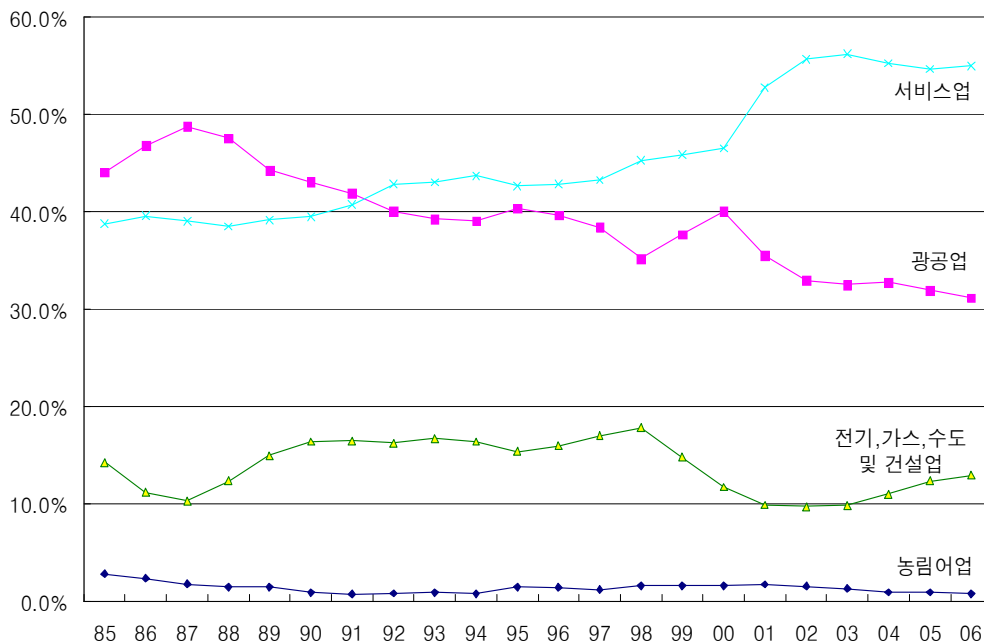
인천의 산업별 부가가치 생산규모 추이



주 : 2000년 기준년 가격(순생산물세를 제외한 기초가격).

자료 : 통계청

인천의 산업별 부가가치 생산비중 추이



주 : 2000년 기준년 가격(순생산물세를 제외한 기초가격).

자료 :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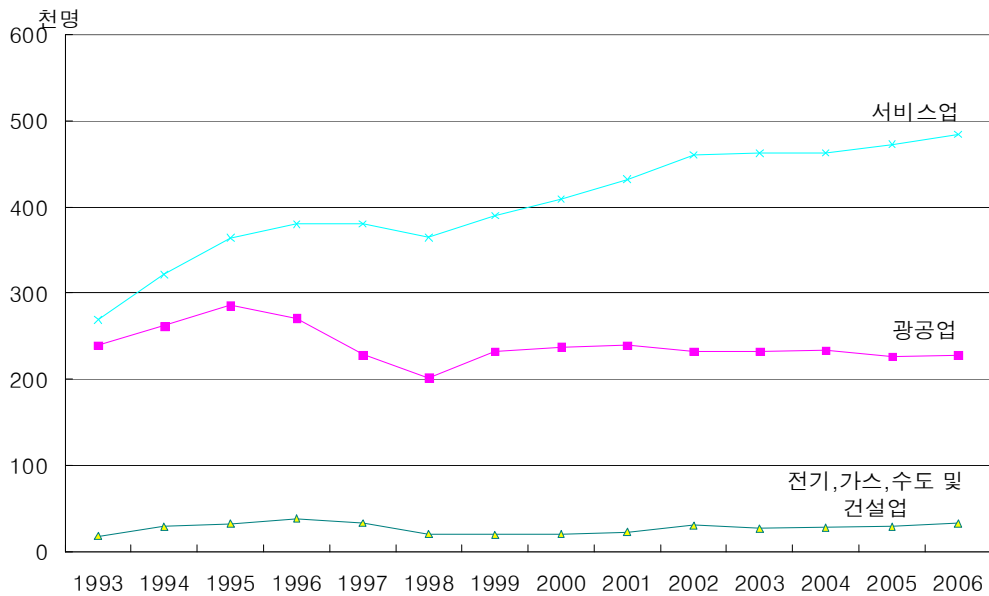
□ 인천 경제의 서비스화 현상은 산업별 고용구조 측면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 관광업의 고용 규모는 95년 28만 6천명에 이르렀으나 2006년에는 22만 8천명 수준으로 감소하여 고용흡수력의 둔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음

— 반면 서비스업의 고용규모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2006년 48만 4천명을 기록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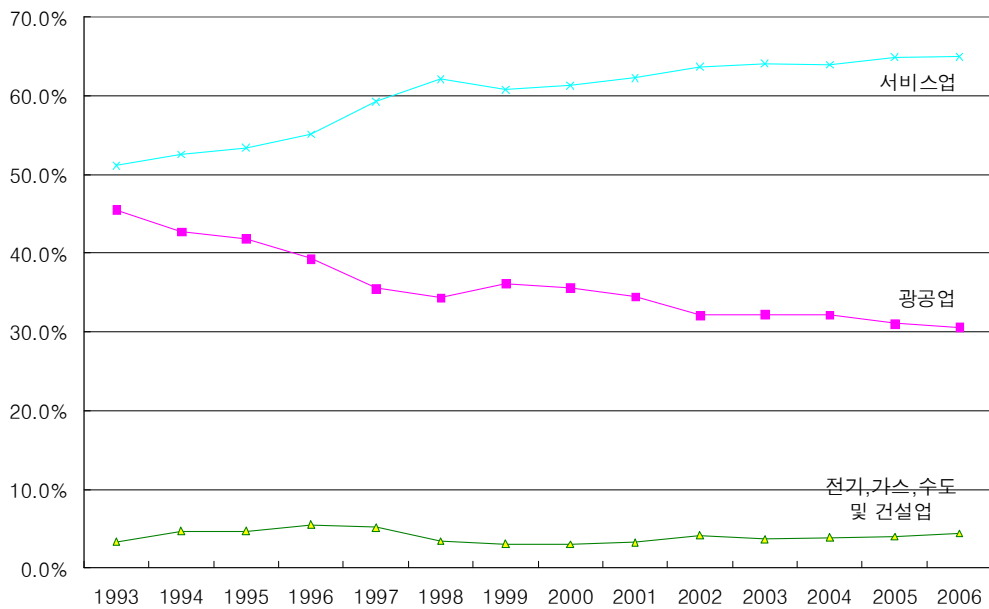
— 이에 따라 관광업의 고용 비중은 2006년 30.6%인 반면 서비스업은 관광업 부문의 2배 이상인 65.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의 산업별 고용규모 추이



주: 농림어업 부문은 생략됨.
자료: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인천의 산업별 고용비중 추이



주: 인천의 총고용에 대한 업종별 비중임.
자료: 사업체기초통계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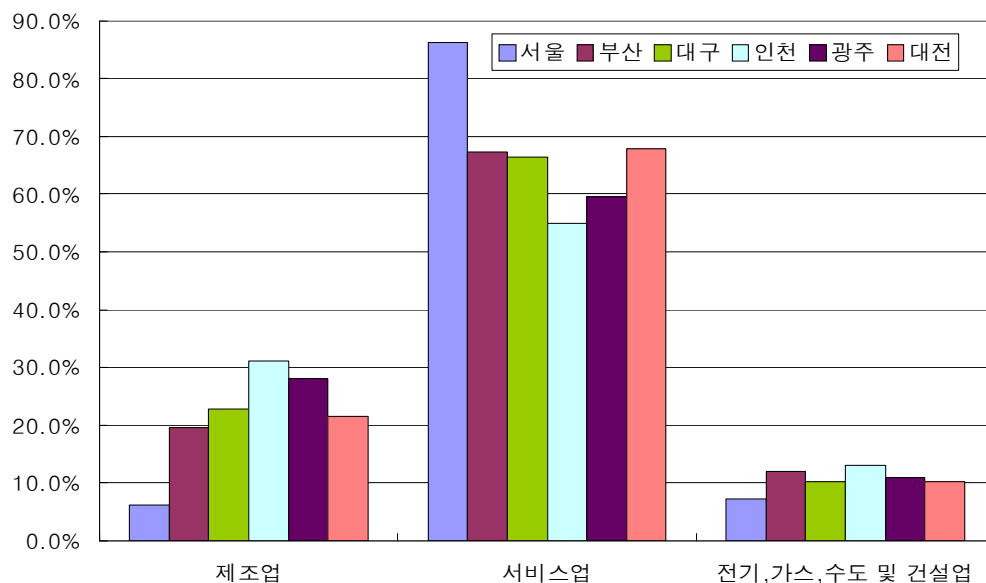
□ 그러나 인천의 산업별 부가가치 생산 및 고용 비중을 울산을 제외한 5개 광역시와 비교해보면 인천의 제조업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부가가치 생산면에서 제조업의 경우 서울은 6.2%에 불과하고, 부산, 대구, 대전 등은 20% 내외인데 반해 인천은 31.1%를 차지하고 있음

—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서울이 86.3%에 이르고 있으며, 부산, 대구, 대전 등은 67% 내외를 나타내고 있으나, 인천은 55%를 나타내 앞으로 서비스업이 더욱 늘어날 여지가 많을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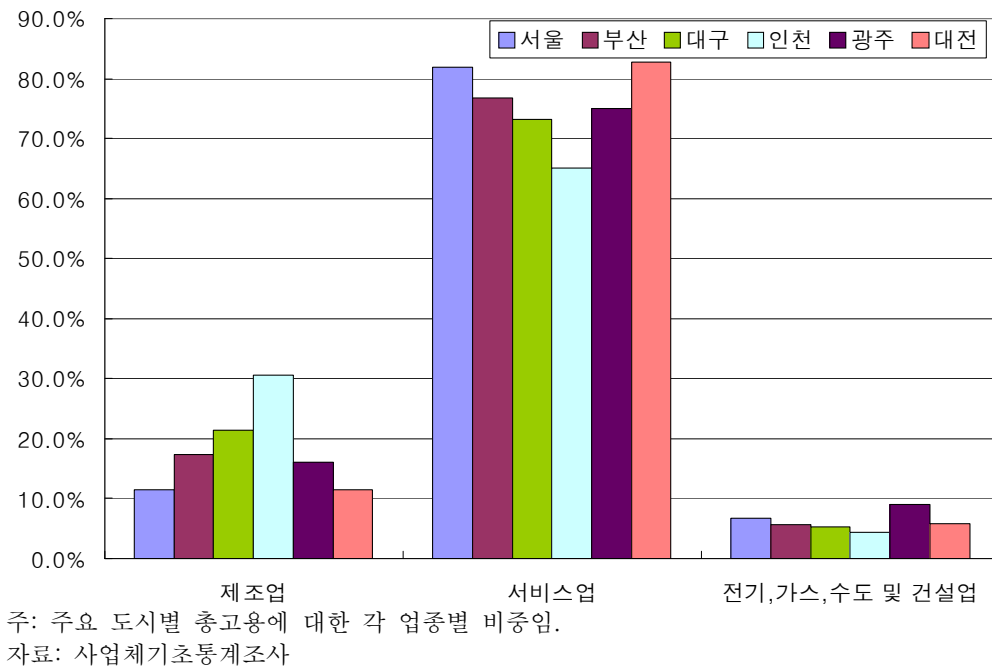
— 고용면에서도 부가가치 생산의 경우와 유사하게 인천 제조업의 고용비중이 가장 크고 서비스업의 고용 비중은 가장 작음

주요 도시의 산업별 부가가치 생산 비중(2006)



주: 주요 도시별 지역내총생산에 대한 각 업종별 비중임.
 자료: 통계청 지역계정

주요 도시의 산업별 고용 비중(2006)



- 산업별 1인당 노동생산성을 비교해보면 전국 평균을 100으로 보았을 때 제조업은 1996년 102.9에서 2006년 65.8로 크게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은 동기간 92.2에서 107.5로 증가하였음

산업별 1인당 노동생산성(전국 평균=100)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제조업	102.9	105.6	92.1	84.5	86.3	80.9	77.5	75.5	70.5	70.5	65.8
서비스	92.2	91.6	85.8	86.9	87.9	99.0	103.4	105.1	105.6	105.7	10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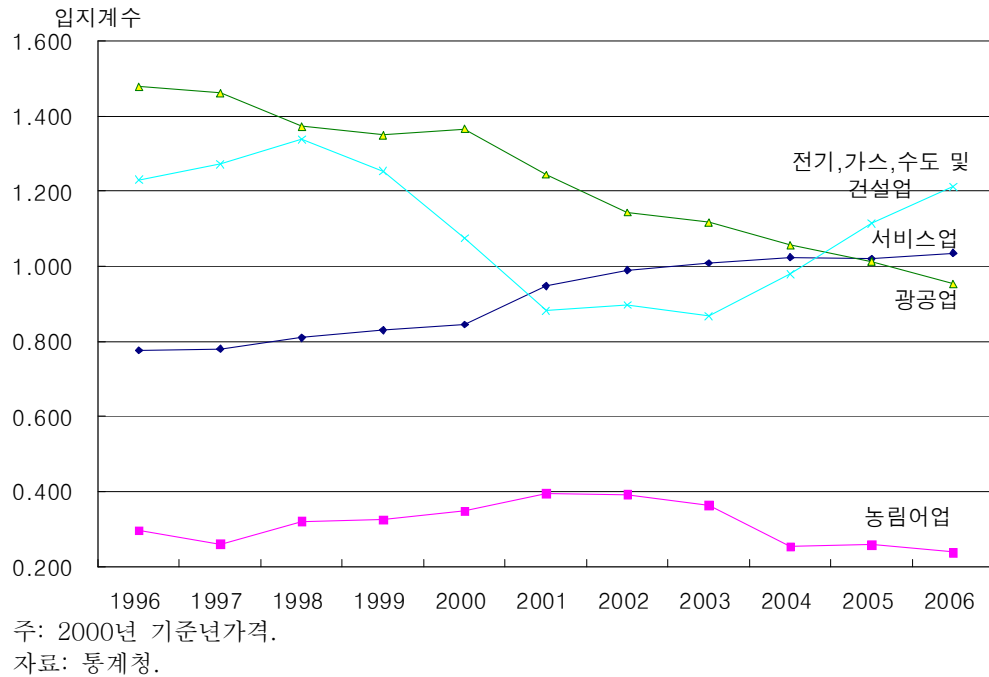
주: 2000년 기준년가격.

자료: 통계청 지역내총부가가치, 사업체기초통계조사.

- 산업별 입지계수(locational quotient)*를 이용하여 인천지역 산업의 특화정도를 살펴보면 서비스업은 2003년 이후 1을 넘어서 상대적으로 서비스 집적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광공업은 2006년 이후 1 미만으로 내려가 인천 제조업의 상대적 집적도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음

* 입지계수는 특정지역의 특정 산업이 전국에 비해 어느 정도 집적되어 있는가를 판단해 보는 지표로 i지역의 j산업에 대한 입지계수는 $LQ_{ij} = (X_{ij}/X_i) / (X_j/X)$ 로 나타냄

인천의 산업별 입지계수(LQ)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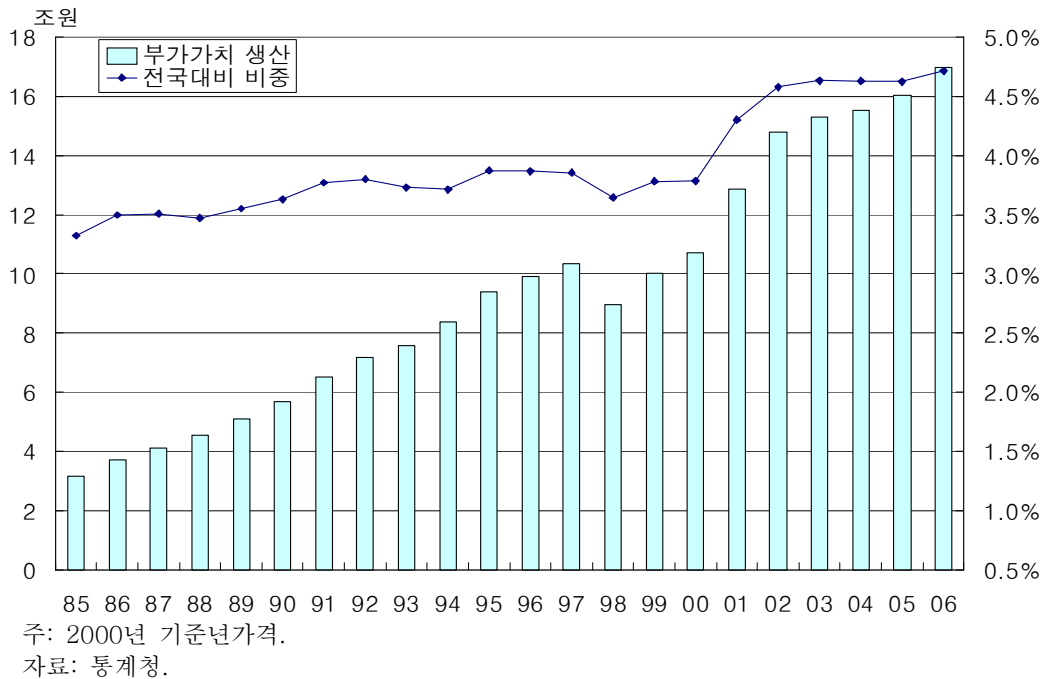


2. 유형별 분석

□ 인천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생산규모는 2000년 기준년 가격(기초가격)으로 85년 3조 1,757억원에서 2006년 16조 9,885억원으로 늘어나 동기간중 5배 이상 증가하였음

— 이에 따라 인천 서비스업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85년 3.3%에서 2006년 4.7%로 증가하였음

인천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생산 추이



□ 서비스업 부문을 생산자서비스, 유통서비스, 사회서비스 및 개인서비스로 구분하여 인천 GRDP 대비 서비스 유형별 생산비중을 보면 생산자서비스와 유통서비스가 각각 19.3%, 19.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사회서비스는 10.7%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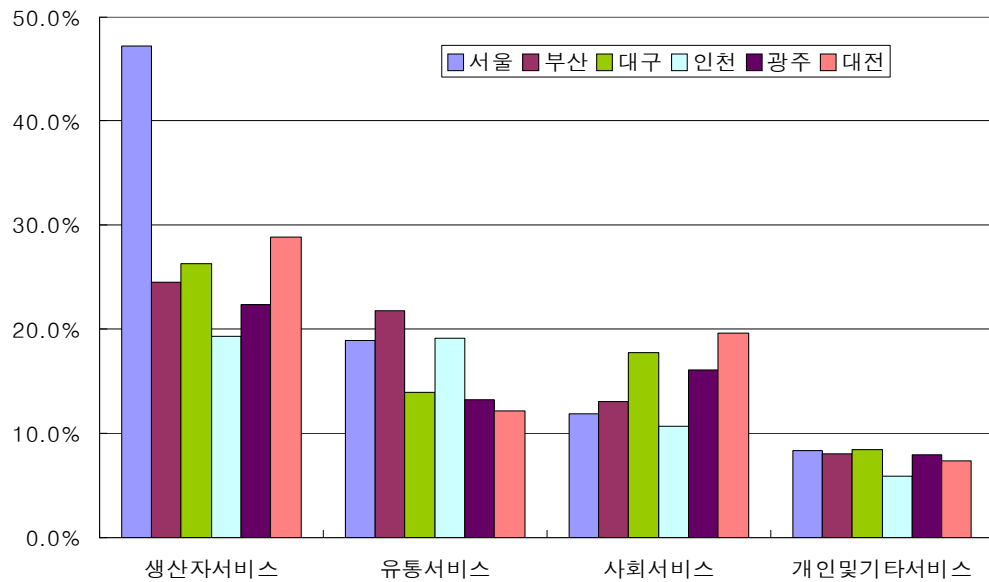
— 그러나 다른 광역시와 비교해보면 생산자서비스와 사회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고, 유통서비스는 부산과 함께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 인천 서비스업의 서비스 유형별 입지계수(LQ)를 보면 유통서비스가 2006년 1.683을 나타내 상대적 집적도가 매우 높은 수준이나 생산자서비스와 사회서비스는 입지계수가 각각 0.833, 0.859로 지역내 특화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서비스 유형별 입지계수 추이를 보면 2000년대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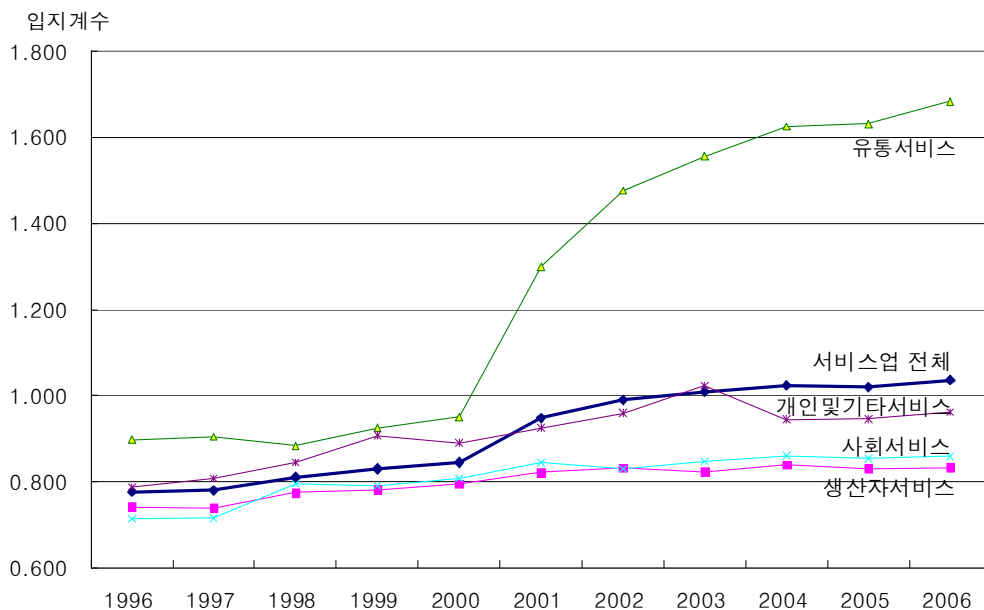
서비스업의 비중 증가는 유통서비스에 기인하는 바가 컸음을 알 수 있음

주요 도시의 서비스 유형별 부가가치 생산 비중(2006)



주: 주요 도시별 지역내총생산에 대한 각 서비스 유형의 비중임.
자료: 통계청 지역계정(2000년 기준년 가격임)

인천 서비스업의 유형별 입지계수(LQ)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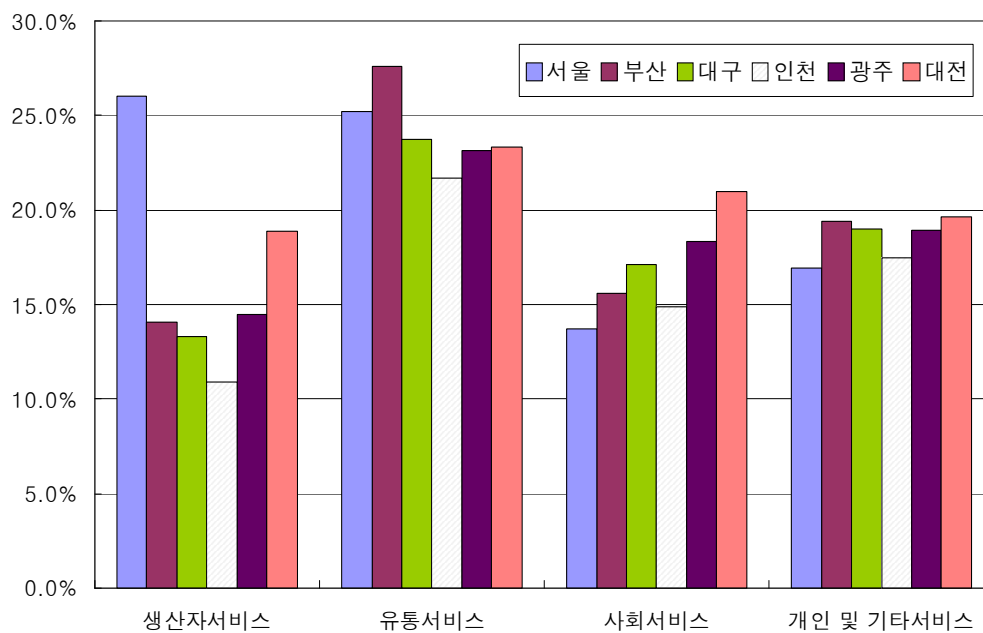
주: 2000년 기준년가격.
자료: 통계청.

□ 인천 총고용에 대한 서비스 유형별 고용 비중을 살펴보면 유통서비스가 21.7%로 가장 크고, 생산자서비스는 10.9%로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음

— 다른 광역시와 비교해보면 인천의 경우 생산자서비스의 총고용에 대한 기여도가 상대적으로도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음

— 그러나 고용비중의 변화 추이를 보면 유통서비스와 개인서비스는 최근 감소추세로 돌아섰고 생산자서비스와 사회서비스는 증가추세에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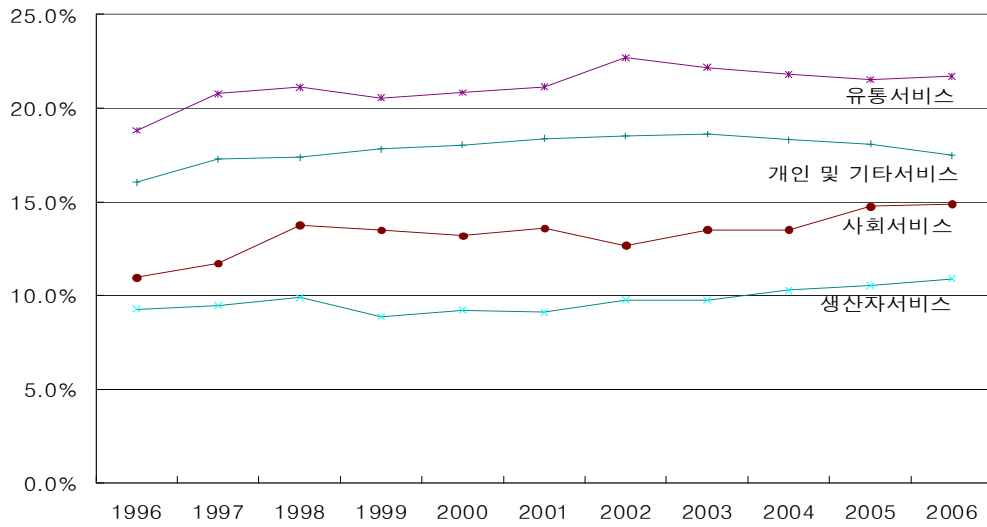
주요 도시의 서비스 유형별 고용 비중(2006)



주: 주요 도시별 총고용에 대한 각 서비스 유형의 비중임.

자료: 사업체기초통계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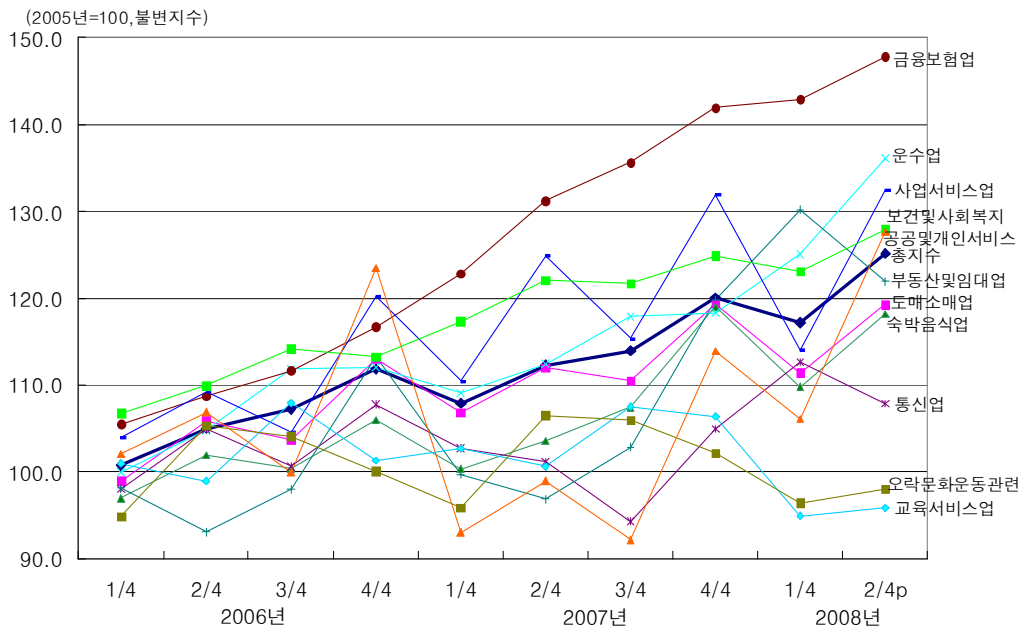
인천의 서비스 유형별 고용 비중



주: 인천의 총고용에 대한 각 서비스 유형의 비중임.
 자료: 사업체기초통계조사

- 인천 서비스업의 2006년 이후의 업종별 생산동향을 보면 금융 보험업, 사업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 등 생산자서비스와 사회서비스 중심의 생산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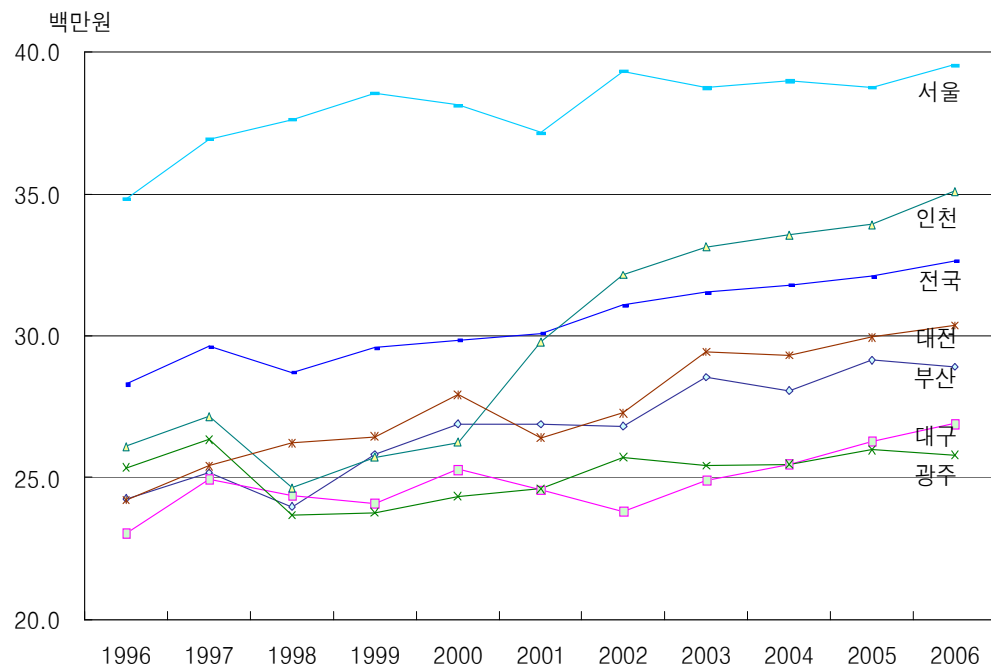
인천 서비스업의 업종별 생산동향



주: 2005년을 100으로 한 불변지수임
 자료: 인천광역시, 인천서비스업 생산동향

- 주요 도시별로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을 비교해보면 인천의 경우에는 2000년까지 서울 서비스업의 생산성 수준과 격차가 매우 컸으나 그 이후 서비스산업 부문이 증가하면서 생산성도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주요 도시의 서비스 생산성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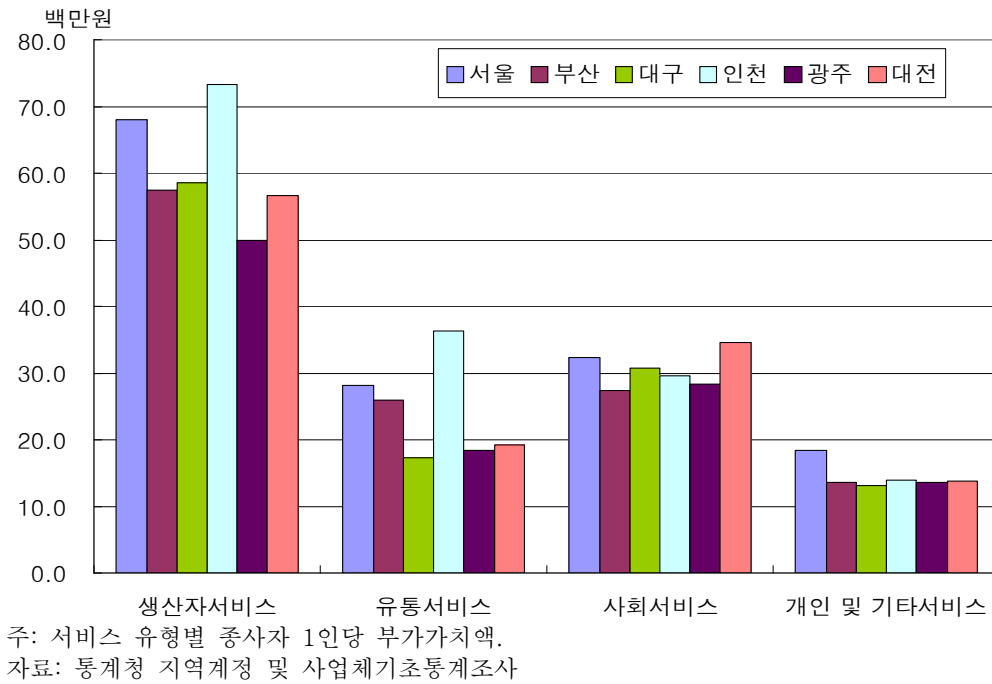
주: 서비스업의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액.

자료: 통계청 지역계정 및 사업체기초통계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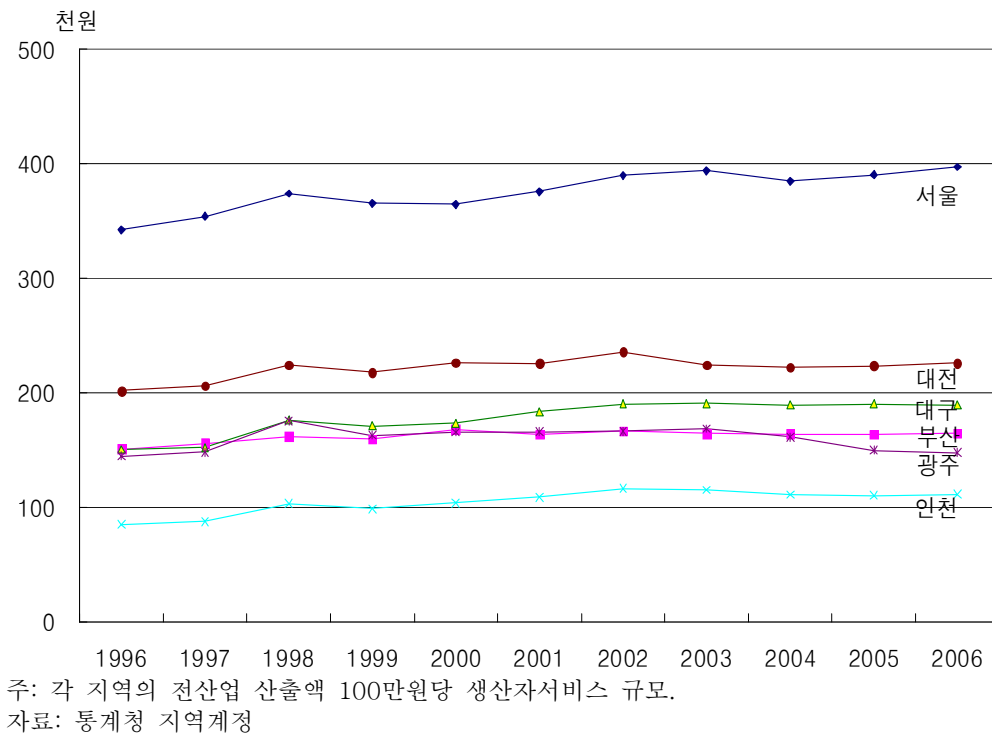
- 서비스 유형별로 보면 인천의 생산자서비스와 유통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노동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생산자서비스의 노동생산성이 높은 것은 부가가치 생산규모에 비해 고용규모가 상대적으로 더 작은 업종의 분포가 더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이는 인천의 산출액 대비 생산자 서비스 규모를 보면 6개 광역시중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나 인천의 생산자 서비스의 효율성에 의해 노동생산성이 증가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임

주요 도시의 서비스 유형별 생산성 추이



주요 도시의 산출액 대비 생산자서비스 규모 추이



□ 인천 서비스업 사업체의 규모별 분포를 보면 상시종사자 1~4명의 영세기업이 총사업체수의 87.8%를 차지하고 있으며 50명 이상의 대기업은 0.8%에 불과함

— 종사자수 기준으로는 영세기업의 비중이 40.2%이며, 대기업은 26.8%임

—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서비스업에서도 고용흡수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견기업 이상에 대한 기업유치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사업체 규모별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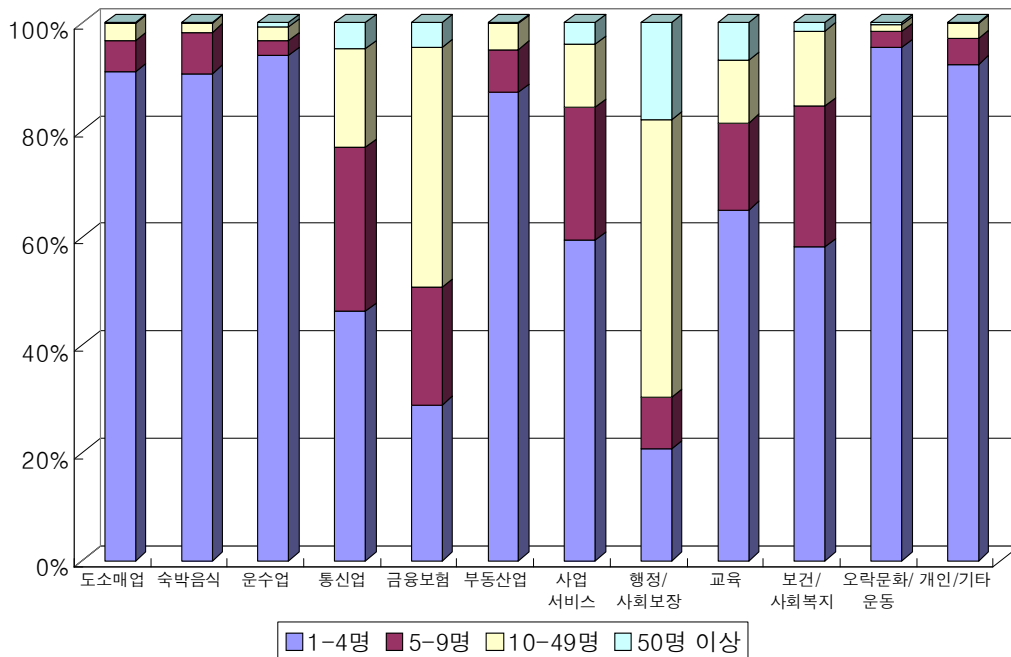
	사업체		종사자	
	사업체수(개사)	비중(%)	종사자수(명)	비중(%)
영세기업(1-4명)	114,336	87.8	194,888	40.2
소기업(5-9명)	9,439	7.3	59,466	12.3
중기업(10-49명)	5,451	4.2	100,143	20.7
대기업(50명 이상)	1,023	0.8	129,774	26.8
계	130,249	100.0	484,271	100.0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 업종별로는 오락·문화·운동, 운수, 숙박·음식, 도·소매업 등이 종사자 규모가 작은 사업체의 비중이 많고, 금융 및 보험업, 사업서비스업, 통신업 등 생산자서비스와 보건·사회복지, 교육 등 사회서비스 부문이 종사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향후 인천 서비스업의 고용흡수력과 고용안정성 측면에서 생산자서비스 및 사회서비스 육성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제고될 필요가 있음

인천 서비스산업의 규모별 사업체수 비중(2006)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 대표적인 생산자 서비스로서 ‘M. 사업서비스업(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에 속하는 주요 업종별(소분류) 전국 대비 비중을 살펴보면 인천은 지역적으로 수도권에 속해 있지만 서울과 경기 지역에 비해 사업서비스업의 비중이 현저하게 작을 뿐만 아니라 업체 규모가 작고 생산성이 낮음을 알 수 있음

—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영과 관련된 업종의 경우 인천의 사업체수 비중은 전국대비 1~2%, 종사자수와 매출액 비중은 1% 미만으로 서울의 60~70%대, 경기의 10~20%대 비중과는 경제 규모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큰 격차가 있음

— 또한 법무, 회계, 시장조사, 컨설팅,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 광고, 디자인 등 전문적인 사업서비스 업종에서도 인천은 전국 대비 1~3%대의 비중만을 차지하고 있음

- 업체당 매출액 규모 및 종사자 1인당 매출액 규모를 지역별로 비교해보면 업종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평균적으로 인천의 사업서비스업체들은 서울이나 경기지역의 업체들에 비해 30~5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인천의 사업서비스업이 전반적으로 업체 규모가 작고 생산성이 낮음을 알 수 있음

수도권의 주요 사업서비스업종별 전국대비 비중 비교(2006)

단위: %

	인천			서울			경기		
	사업체	종사자	매출액	사업체	종사자	매출액	사업체	종사자	매출액
컴퓨터시스템 설계/자문	2.2	-	-	55.3	73.4	74.2	17.5	22.8	24.2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1.5	0.6	0.4	65.8	79.4	85.2	10.7	8.0	6.3
자료처리/ 컴퓨터시설 관리	1.7	0.4	0.2	43.1	55.7	70.0	12.8	27.9	17.5
DB/온라인정보 제공	1.2	0.5	0.2	68.3	78.1	74.5	9.3	14.8	22.8
법무/회계	4.1	4.0	3.0	39.8	47.1	55.8	16.3	14.4	13.1
시장조사/ 경영상담업	1.5	1.4	1.0	63.9	75.6	87.0	10.5	6.6	4.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3.3	1.9	1.2	33.1	49.8	58.3	18.3	16.9	16.3
과학/기술서비스	3.6	5.2	7.5	18.3	24.4	28.7	25.8	24.6	25.9
광고업	1.9	1.2	0.8	53.4	72.5	87.8	8.3	5.2	1.9
디자인업	1.6	1.0	1.0	64.2	72.2	76.2	10.3	8.9	9.2
사업시설유지관리 /고용서비스	4.1	3.5	3.1	25.0	46.6	42.9	18.8	11.5	13.4

주: 각 지역의 사업체수, 종사자수 및 매출액이 각각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통계청.

- 2003~06년 기간의 주요 사업서비스업종별 연평균 성장률을 비교해보면 인천에서는 매출액 규모면에서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DB 및 온라인정보제공업, 법무 및 회계, 시장조사 및 경영상담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이 비교적 빠른

성장세를 보였음

- 종사자 면에서는 법무 및 회계, 시장조사 및 경영상담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유지관리 및 고용서비스업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나타냈음

수도권의 주요 사업서비스업종별 연평균 성장률 비교(2003~06)

단위: %

	인천			서울			경기		
	사업체	종사자	매출액	사업체	종사자	매출액	사업체	종사자	매출액
컴퓨터시스템 설계/자문	-3.9	-	-	-6.4	9.1	-7.5	0.5	46.9	72.3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3.9	2.1	23.6	2.3	9.0	14.4	14.3	17.1	16.5
자료처리/ 컴퓨터시설 관리	6.3	12.9	-10.2	-3.8	-15.3	-2.4	10.1	42.3	28.6
DB/온라인정보 제공	-7.2	-0.7	89.7	-4.6	4.8	7.8	5.3	58.9	145.1
법무/회계	7.9	6.7	10.2	3.6	2.8	5.2	7.6	5.2	14.9
시장조사/ 경영상담업	7.1	44.2	124.2	5.7	5.8	26.7	21.0	17.7	36.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0.2	-1.5	-20.6	-1.1	5.8	16.8	3.5	4.8	7.1
과학/기술서비스	4.1	29.2	50.7	0.3	3.1	7.7	8.4	8.9	19.0
광고업	-3.9	-11.4	12.9	-1.4	0.0	13.5	-1.9	-0.5	4.0
디자인업	0.0	0.9	22.1	2.6	5.6	16.7	4.7	8.6	58.3
사업시설유지관리 /고용서비스	1.4	20.2	23.6	2.8	12.9	20.3	5.6	4.9	32.6

주: 각 지역 사업체수, 종사자수 및 매출액의 2003~06년 기간중 연평균 성장률임
자료: 통계청.

3. 산업연관분석

- 이하에서는 한국은행 인천본부에서 작성한 '2003년 인천산업연관표'*를 토대로 분석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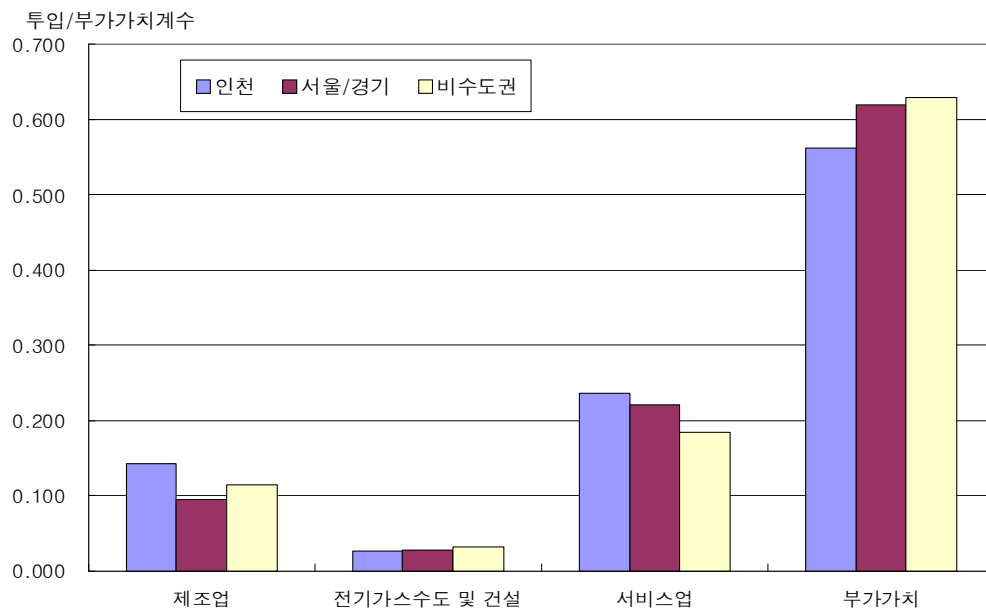
* 2007년 3월 공표된 '2003년 지역산업연관표'를 바탕으로 한국은행

인천본부가 다수의 지역경제 통계를 활용하여 한국은행 지역본부로서는 최초로 관할지역을 대상으로 작성한 지역산업연관표임(이인규 2007)

(서비스 생산을 위한 중간투입구조)

- 각 지역별로 서비스 생산을 위한 중간투입구조를 비교해보면 인천 서비스업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중간투입에 대한 의존도가 여타 지역보다 큰 반면 부가가치계수는 작은 것을 알 수 있음

지역별 서비스 생산의 투입/ 부가가치 계수 비교(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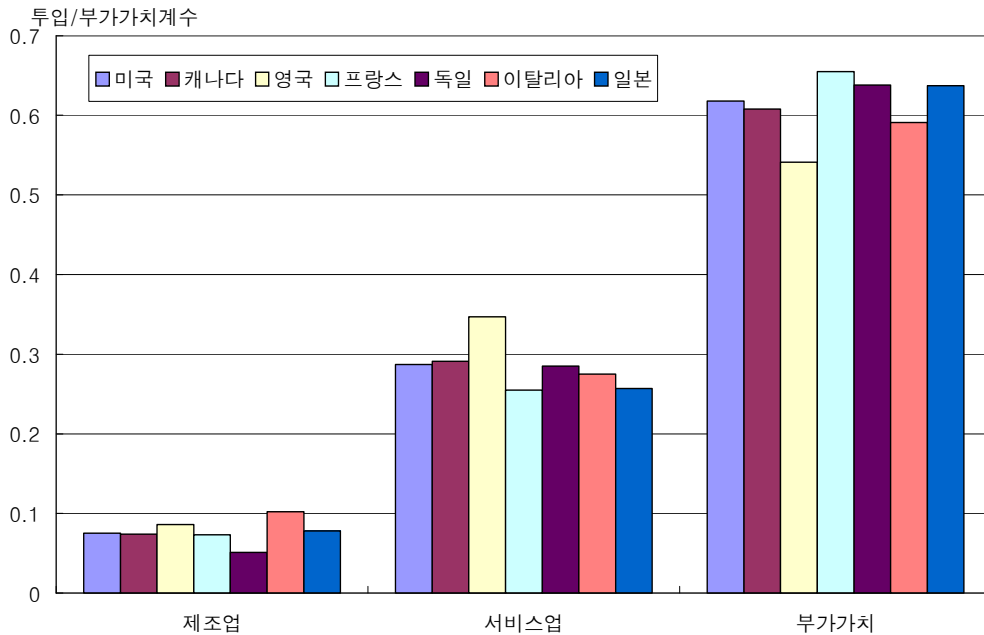
자료: 이인규(2007), 한국은행 인천본부.

- 서비스 생산을 위한 중간투입구조를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보면 인천의 경우 제조업의 투입계수는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서비스업의 투입계수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선진국에서는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전됨에 따라 서비

스 생산에 있어서도 ‘탈공업화’가 진행된 반면 인천은 그 정도가 낮은 수준임을 보여주는 것임

주요 국가별 서비스 생산의 투입/ 부가가치 계수 비교(2000)



주: OECD의 2000년 기준 Input-Output database를 이용한 것임
 자료: OECD, 이건우(2008)

□ 각 지역별 서비스 생산을 위해 중간투입된 지역별 부문별 투입계수를 비교해보면 인천의 서비스업이 서울·경기지역으로부터의 서비스 중간투입에 의존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음

— 인천 서비스 생산에는 중간투입된 서비스중에서 서울·경기지역의 서비스가 24.9%인 반면 서울·경기지역의 서비스 생산에는 인천의 서비스가 1.4% 투입된 것에 불과함

— 이는 양 지역간의 경제규모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서비스 부문에서의 상호의존도의 불균형이 매우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음

지역별 서비스업의 업종별 투입계수 비교(2003)

		서비스업 부문		
		인천	서울·경기	비수도권
제조업	인천	0.023	0.002	0.002
	서울·경기	0.022	0.038	0.023
	비수도권	0.053	0.038	0.070
	소계	0.142	0.095	0.115
서비스업	인천	0.107	0.003	0.002
	서울·경기	0.059	0.186	0.041
	비수도권	0.010	0.009	0.129
	소계	0.237	0.221	0.185
중간투입계		0.439	0.381	0.3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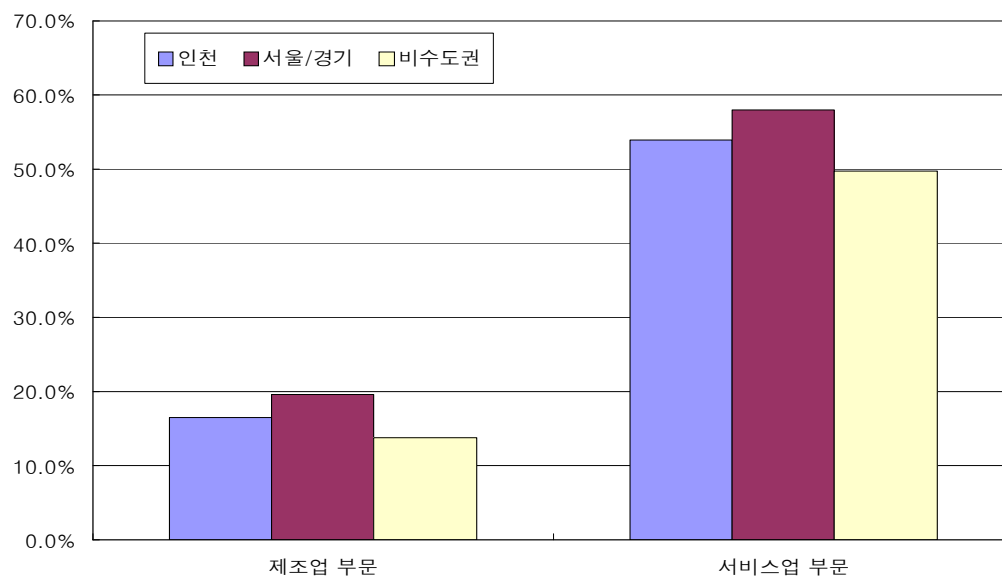
주: 소계에는 수입 포함
자료: 한국은행 인천본부

(중간재로의 투입비중)

- 제조업 부문이나 서비스업 부문의 생산과정에서 서비스업이 중간재로서 투입되는 비중을 비교해보면 지역별 생산의 서비스업 의존도 또는 서비스업과 여타 산업과의 연관관계를 확인해볼 수 있음
- 서비스업의 중간투입비중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제조업 부문이나 서비스업 부문이나 서울·경기지역이 중간투입의 서비스화가 가장 높고 비수도권이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음
- 이러한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중간투입비중을 주요 국가와 비교해보면 선진국들은 제조업 부문의 경우 30% 내외, 서비스업 부문에서는 70% 내외인 것으로 나타나 인천의 경우보다 15% 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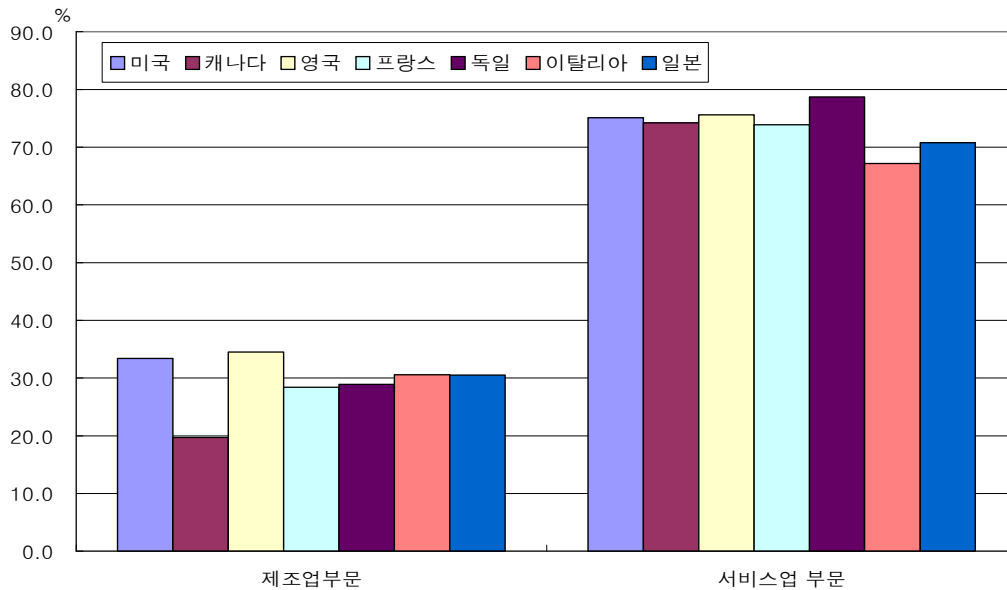
- 이러한 차이는 먼저 서비스업의 발전 정도가 인천에서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보여줌
-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인천에서는 생산자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큰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의 발전이 지체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도 있음.
- 이는 인천에서는 제조업의 생산이 서비스 투입을 유발하면서 다시 서비스산업을 촉진시키는 산업연관효과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줌

지역별 서비스업의 중간투입비중 비교(2003)



주: 서비스업의 중간투입비중은 (서비스업의 중간투입계수/중간투입계) x 100임
 자료: 한국은행 인천본부

주요 국가별 서비스업의 중간투입비중 비교(2000)



주: 서비스업의 중간투입비중은 (서비스업의 중간투입계수/중간투입계) x 100임
 OECD의 2000년 기준 Input-Output database를 이용한 것임
 자료: OECD, 이건우(2008)

□ 각 지역별 제조업 생산활동을 위해 중간투입된 지역별 서비스업의 투입계수를 비교해보면 앞의 서비스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인천의 제조업이 서울·경기지역으로부터의 서비스 중간투입에 의존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음

— 인천 제조업 생산에는 중간투입된 서비스중에서 서울·경기지역의 서비스가 28.8%인 반면 서울·경기지역의 제조업 생산에는 인천의 서비스가 2.2% 투입된 것에 불과함. 즉 제조업 부문에서도 중간투입 서비스에 대한 상호의존도가 매우 불균형한 상태에 있음을 볼 수 있음

지역별 제조업의 업종별 투입계수 비교(2003)

		제조업 부문		
		인천	서울·경기	비수도권
제조업	인천	0.177	0.021	0.011
	서울·경기	0.050	0.160	0.040
	비수도권	0.139	0.155	0.303
	소계	0.502	0.510	0.491
서비스업	인천	0.066	0.003	0.002
	서울·경기	0.034	0.110	0.031
	비수도권	0.010	0.013	0.061
	소계	0.118	0.137	0.099
전산업 중간투입		0.713	0.699	0.722

주: 소계에는 수입 포함
자료: 한국은행 인천본부

□ 인천 제조업내 중간투입된 서비스의 지역별 업종별 투입계수를 보면 인천 제조업이 어떤 지역의 어떤 업종에 더 많이 의존하는가를 알 수 있음

- 서울·경기지역으로부터 이입된 서비스중에서는 도소매, 금융 및 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에 의존하는 바가 큼
- 또한 비수도권지역에서는 주로 도소매업에 대한 의존도가 크고 수입부문에서는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의 의존도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인천 서비스업 중에서 금융 및 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등과 같은 생산자서비스의 타지역으로부터의 이입 및 수입에 대한 대외의존도가 크다는 것을 보여줌
- 이밖에 도소매와 같은 유통서비스와 교육 및 보건 등 사회

서비스의 대외의존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인천 제조업내 투입서비스의 지역별 업종별 투입계수(2003)

	인천	서울·경기	비수도권	수입	업종별 소계
도소매	0.014	0.008	0.005	0.000	0.027
음식점 및 숙박	0.000	0.000	0.000	0.000	0.000
운수 및 보관	0.018	0.002	0.003	0.000	0.023
통신 및 방송	0.003	0.000	0.000	0.000	0.003
금융 및 보험	0.010	0.009	0.001	0.001	0.019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0.013	0.010	0.001	0.007	0.031
공공행정 및 국방	0.000	0.000	0.000	0.000	0.000
교육 및 보건	0.008	0.005	0.000	0.000	0.013
사회 및 기타서비스	0.001	0.000	0.000	0.000	0.001
지역별 소계	0.066	0.034	0.010	0.008	0.118

자료: 한국은행 인천본부.

인천 제조업내 투입서비스의 지역별 업종별 투입비중(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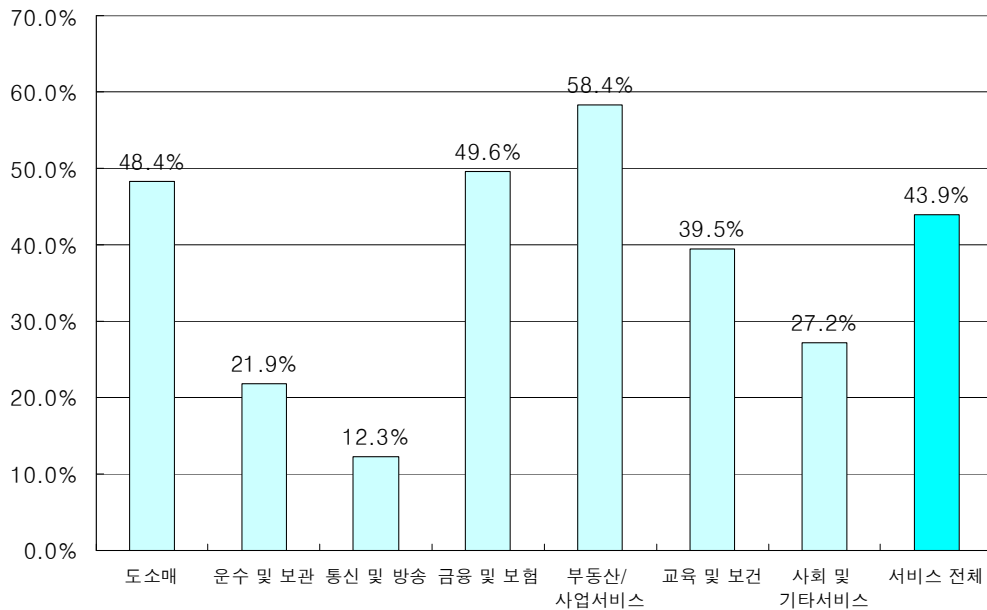
(단위: %)

	인천	서울·경기	비수도권	수입	업종별 소계
도소매	12.1	7.0	4.3	0.0	23.4
음식점 및 숙박	0.0	0.0	0.0	0.0	0.0
운수 및 보관	15.4	1.7	2.5	0.2	19.8
통신 및 방송	2.2	0.3	0.0	0.0	2.6
금융 및 보험	8.3	7.2	0.5	0.5	16.6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10.9	8.4	0.5	6.4	26.2
공공행정 및 국방	0.0	0.0	0.0	0.0	0.0
교육 및 보건	6.5	3.9	0.3	0.0	10.7
사회 및 기타서비스	0.6	0.2	0.0	0.0	0.8
지역별 소계	56.1	28.8	8.1	7.0	100.0

주: 지역별 업종별 투입계수를 서비스부문의 총중간투입계수로 나눈 것임

자료: 한국은행 인천본부.

인천 제조업내 투입 서비스의 업종별 대외 의존도(2003)



주: 업종별 이입 및 수입 투입계수의 합을 업종별 총중간투입계수로 나눈 것임.

자료: 한국은행 인천본부.

□ 이러한 서비스업의 대외의존도를 지역간 교역구조를 통해 살펴보면, 2003년의 경우 인천지역의 이출액은 3조 7,174억원, 이입액은 3조 6,468억원으로 타지역과의 교역수지(이출액-이입액)는 706억원 흑자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업종별로 보면, 공산품은 3조 2,590억원, 전력, 가스, 수도 및 건설은 3조 3,343억이 흑자인 반면 서비스는 5조 9,168억원이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음

— 서비스업종 중에서는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가 2조 9,288억 원 규모의 지역간 교역수지 적자를 기록해 서비스 부문 적자규모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인천지역 교역구조(2003)

(단위: 10억원)

	이출액	이입액	교역수지
농림수산물	120.5	903.2	-782.7
광산물	244.3	67.5	176.9
공산물	21,087.4	17,828.4	3,259.0
전력,가스,수도,건설	3,716.4	382.1	3,334.3
서비스	5,548.8	11,465.5	-5,916.8
합계	30,717.4	30,646.8	70.6

자료: 이인규(2007), 한국은행 인천본부.

인천지역 서비스 업종별 교역구조(2003)

(단위: 10억원)

	서울경기		비수도권		합계	
	이출액	이입액	이출액	이입액	이출액	이입액
도소매	249.3	1,103.7	253.1	933.1	502.3	2,036.8
음식점 및 숙박	177.7	257.9	202.7	496.3	380.3	754.2
운수 및 보관	1,898.2	309.6	1,542.5	296.7	3,440.7	606.3
통신 및 방송	40.3	524.7	96.7	9.0	137.0	533.7
금융 및 보험	258.0	1,958.7	116.7	65.0	374.7	2,023.6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170.7	2,990.7	124.9	233.6	295.6	3,224.4
교육 및 보건	213.5	1,091.9	165.9	197.7	379.4	1,289.6
사회 및 기타서비스	28.8	885.4	9.8	111.5	38.7	996.9
합계	3,036.5	9,122.6	2,512.3	2,343.0	5,548.8	11,465.5

자료: 이인규(2007), 한국은행 인천본부.

(생산유발효과)

- 서비스업이 제조업 생산을 유발하는 효과를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한국이 선진국보다 큰 반면, 서비스 생산을 유발하는 효과는 한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앞서 언급된 것처럼 서비스업의 투입구조가 제조업 비중은 상대적으로 크고 서비스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과 관련이 있음

—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제조업 생산에 투입되는 서비스 투입비율이 낮아 제조업 생산이 서비스생산을 유발하는 효과도 한국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이건우 2008)

— 인천의 경우에도 서비스업이 제조업 생산을 유발하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볼 수 있음

□ 인천 서비스업의 업종별 생산유발계수*를 타지역과 비교해보면 음식점 및 숙박업, 사회 및 기타서비스, 도소매업 등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난 반면 운수 및 보관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생산유발계수는 작은 것으로 나타남

* 특정 지역의 특정 산업에서 최종수요가 1단위 증가하였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자გი지역내 및 타지역에 파급되는 생산단위를 나타내는 것임

지역별 서비스업의 생산유발계수(2003)

	인천	서울경기	비수도권
도소매	1.604	1.595	1.604
음식점 및 숙박	1.926	1.943	1.903
운수 및 보관	1.481	1.513	1.601
통신 및 방송	1.561	1.557	1.624
금융 및 보험	1.465	1.421	1.527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1.457	1.555	1.462
공공행정 및 국방	1.516	1.526	1.556
교육 및 보건	1.562	1.558	1.546
사회 및 기타서비스	1.892	1.830	1.878

자료: 이인규(2007), 한국은행 인천본부.

(고용유발효과)

□ 인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취업자수는 463,538명으로 이중 142,773명이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 종사자*에 해당됨

* 취업자는 종사상 지위에 따라 피용자와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 피용자는 사업체에 고용되어 임금을 받는 임금근로자이며,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는 임금을 받지 않는 근로자임

— 특히 도소매업이나 음식 및 숙박업은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 종사자의 비중이 50% 내외에 이르고, 운수업이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은 30% 내외에 이르고 있음

산업별 취업자수(2003)

단위: 명, %

	인천			전국		
	피용자 (A)	자영업주/ 무급가족 종사자(B)	비중 (B/ (A+B))	피용자(A)	자영업주/ 무급가족 종사자(B)	비중 (B/ (A+B))
농림어업	1,738	24,401	93.4	145,759	1,786,377	92.5
광업	1,232	81	6.2	17,403	1,451	7.7
제조업	195,886	21,322	9.8	2,968,694	325,353	9.9
전력,가스 및 건설	74,181	4,033	5.2	1,641,872	68,324	4.0
서비스업	320,765	142,773	30.8	7,279,929	3,429,994	32.0
도소매	46,951	45,601	49.3	1,278,109	1,516,379	54.3
음식 및 숙박	30,855	34,532	52.8	687,865	786,553	53.3
운수 및 보관	61,214	26,744	30.4	655,755	280,042	29.9
통신 및 방송	5,444	338	5.8	153,995	10,496	6.4
금융 및 보험	23,604	375	1.6	595,827	5,950	1.0
부동산/사업서비스	26,539	10,840	29.0	974,026	205,288	17.4
공공 행정/국방	30,584	81	0.3	667,890	0	0.0
교육 및 보건	73,057	8,020	9.9	1,703,395	183,813	9.7
사회 및 기타	22,517	16,242	41.9	563,067	441,473	43.9
전산업	593,802	192,610	24.5	12,053,657	5,611,499	31.8

주: 비중은 업종별 취업자중 자영업주 또는 무급가족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한국은행 인천본부. 이인규(2007)

□ 인천 서비스업의 취업유발계수*는 17.8로 전산업 평균 취업유발계수 14.2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취업유발계수는 피용자에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하여 산출한 계수이며, 고용유발계수는 피용자(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산출한 계수임

— 업종별로 음식점 및 숙박업, 도소매업, 사회 및 기타서비스업 등이 높은 편임

— 고용유발계수도 인천 서비스업의 경우 12.1로 전산업 평균 고용유발계수 10.3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취업 및 고용계수(2003)

단위: 명/10억원

	취업계수		고용계수	
	인천	전국	인천	전국
농림어업	42.5	49.3	2.8	3.7
광업	4.5	5.6	4.2	5.2
제조업	4.9	4.2	4.4	3.8
전력,가스,수도 및 건설	6.3	9.4	6.0	9.0
서비스업	13.1	15.2	9.1	10.3
도소매	31.0	35.0	15.7	16.0
음식점 및 숙박	25.5	27.6	12.0	12.9
운수 및 보관	8.9	15.0	6.2	10.5
통신 및 방송	3.2	3.8	3.0	3.6
금융 및 보험	8.0	8.0	7.9	7.9
부동산/사업서비스	5.6	6.5	3.9	5.4
공공행정/국방	15.0	11.6	15.0	11.6
교육 및 보건	17.1	17.0	15.4	15.3
사회 및 기타서비스	24.6	23.5	14.3	13.2
전산업	8.5	10.4	6.4	7.1

자료: 이인규(2007), 한국은행 인천본부.

산업별 취업 및 고용유발계수(2003)

단위: 명/10억원

	취업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	
	인천	전국	인천	전국
농림어업	48.4	57.6	5.9	7.1
광업	7.9	9.8	6.6	8.1
제조업	11.9	12.1	9.2	8.6
전력,가스,수도 및 건설	10.5	15.5	9.1	13.5
서비스업	17.8	20.5	12.1	13.7
도소매	35.5	40.1	18.9	19.6
음식점 및 숙박	37.9	40.5	16.7	17.7
운수 및 보관	12.2	19.0	8.5	13.4
통신 및 방송	7.2	8.4	6.0	6.9
금융 및 보험	11.7	11.9	10.5	10.7
부동산/사업서비스	9.3	10.9	7.0	8.7
공공행정/국방	19.5	16.4	18.0	14.7
교육 및 보건	21.8	21.7	18.6	18.5
사회 및 기타서비스	31.4	30.8	18.9	18.0
전산업	14.2	16.9	10.3	11.2

자료: 이인규(2007), 한국은행(2007).

V. 종합평가 및 정책과제

1. 종합평가

- 선진국의 경제의 서비스화는 19세기 후반부터 시작되었으며, 미국이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1940년대 말 이미 서비스업의 고용비중이 50%를 상회했음
 - 제조업 강국인 독일 및 일본은 서비스업의 생산성 발전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려 80년대 중반이 되어서야 서비스 고용 비중이 50%에 달했음
- 이러한 서비스업의 발전은 제조업 발전에 따른 기능 분화 및 전문화, 첨단 기기로부터 유발되는 서비스의 확대, 세계경제의 글로벌화·금융화·정보통신기술화에 따른 독자적 산업화 등에 의해 가속화되었음
- 선진국에서 경제의 서비스화 현상을 산업구조 측면에서 추동한 요인은 선진국 제조업의 가격경쟁력 약화에서 찾을 수 있음
 - 70~80년대 신흥공업국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선진국에서는 약화된 가격경쟁력을 만회하기 위해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 전략을 추진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생산과정의 서비스화가 진행된 것임
 - 이 과정에서 선진국의 기업들은 단순노동의 제조공정을 해외로 이전하는 한편 비용 절감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내 사업서비스 기능을 외부로부터 조달하면서 기술집약적 제

조업 또는 지식기반의 서비스업에 핵심역량을 집중하였음

— 최근에는 FTA 등 자유무역제도를 통해 서비스의 글로벌 교역을 활성화하면서 선진국의 서비스시장 확대를 도모하고 있음

□ 이러한 선진국의 경험에 비해 인천 서비스업의 발전과정은 제조업의 이탈 또는 고용흡수력 약화로 인해 저부가가치의 유통 및 개인서비스가 비대하게 됨으로써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음

— 또한 서비스업을 연계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비용절감 차원에서 단순업무지원을 하청업체에게 아웃소싱하고 있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통해 생산성을 개선하려는 전략은 미흡함

— 이는 산업연관분석에서 보았듯이 제조업과 서비스업간의 연계가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 인천 서비스산업의 발전 비전은 제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는 기본적으로 제조업 수출 주도의 지역경제의 틀을 전환시키는 의미를 가짐

□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통해 제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은 제조업과 서비스산업간의 내적 연관구조를 심화시키고 생산의 중층화를 추진하는 것임

—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과 구조조정을 통해 서비스 수요를

확대하고 이러한 내수 기반을 바탕으로 서비스 업체들이
중간재 투입을 늘리면서 영세성을 탈피하고 기업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서비스산업 자체의 성장동력화는 ‘고용 없는 성장’의 대안이라
는 점에서 발전 비전을 찾을 수 있음

— 과거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인천 경제의 성장은 조립·
가공 중심의 제조업에 의해 주도되었으나 외환위기를 거치
면서 인천 제조업의 성장동력은 크게 약화되었음

— 또한 제조업에서는 이미 고부가가치화를 위해서는 비용 절
감 특히 인력감축이 필수적이므로 고용없는 성장이 불가피
한 측면이 있음

— 그러나 서비스업은 아직 발전의 초기단계로서 생산이 증가
하면서도 고용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산업적 기반을 갖
추고 있음

□ 서비스 유형별로는 제조업과의 연계 발전을 도모한다는 차원
에서 생산자 서비스에 대한 R&D 투자와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함

— 생산자 서비스는 다른 서비스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
산성이 높아 서비스산업 자체의 생산성을 견인할 뿐만 아
니라 중간투입요소로서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함

— 반면 유통서비스는 시장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비용이 절감
되는 규모의 경제 효과가 크게 나타나 부가가치 생산과 고

용의 지속적인 증가에는 한계를 보이며, 개인서비스는 서비스의 소비주체가 개인이기 때문에 대규모화하기 힘들고 소득증가율 이상의 성장을 구현하기 어려움

- 또한 유통 또는 개인 서비스 유형은 기본적으로 비숙련노동에 의존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부가가치 창출능력이 낮을 수밖에 없음

2. 정책과제

(제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자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 인천 제조업의 규모별 구조변화를 보면 근로자수 50인 미만 소기업의 비중이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면에서 전국 평균수준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여 인천 제조업의 생산성 및 고용흡수력을 제고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음

- 더욱이 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영세기업 비중은 최근 감소 추세로 나타났지만 2006년의 경우 총사업체수의 48.8%, 종사자수의 14.9%를 차지해 2000년 수준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근로자수 300인 이상의 대기업 비중은 사업체수와 종사자수면에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국 평균수준보다 낮은 수준임
-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산업별로 1인당 노동생산성(부가가치 생산/종사자)을 비교해보면 제조업부문은 외환위기 이

후 급격히 감소하여 2006년에는 전국 평균의 65.8%를 기록하여 생산성 측면에서도 인천 경제의 성장동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인천지역 제조업의 규모별 비중 추이

단위: %, 백만원

		2000			2003			2006		
		사업체	종사자	부가 가치	사업체	종사자	부가 가치	사업체	종사자	부가 가치
전국	소기업	91.3 (46.8)	44.3 (11.1)	22.9 (4.6)	92.3 (50.3)	47.6 (13.1)	25.2 (5.6)	92.6 (49.5)	47.7 (12.9)	25.1 (5.4)
	중기업	8.0	29.7	27.3	7.1	29.4	27.7	6.9	28.2	26.1
	대기업	0.7	26.0	49.8	0.6	23.0	47.1	0.6	24.1	48.8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인천	소기업	91.8 (46.5)	49.2 (12.3)	36.1 (7.7)	93.4 (52.0)	54.4 (15.5)	40.4 (9.3)	93.5 (48.8)	56.7 (14.9)	39.8 (8.8)
	중기업	7.7	30.4	37.5	6.3	29.0	34.8	6.2	29.3	33.6
	대기업	0.5	20.4	26.4	0.4	16.6	24.8	0.3	13.9	26.6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소기업은 근로자수 50인 미만, 중기업은 50인 이상 300인 미만, 대기업은 300인 이상임.

2) 소기업란의 ()는 근로자수 10인 미만의 기업임.

자료: 통계청.

□ 이와 같이 현재 인천에는 스스로 서비스 수요를 창출할 만한 역량이 되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공공부문의 지원을 기반으로 생산자서비스 수요를 집적시켜 제조업체와 서비스업체를 연계해주는 지원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 이러한 지원체계는 제조업체들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체의 수요기반 확보와 경쟁력 향상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지원해야 될 생산자 서비스의 구체적인 업종은 인천 제조업체들로부터 수요조사를 통해 선별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생산자 서비스는 기업의 내부기능을 외부로부터 지원받는 것이

기 때문에 동종의 중소기업들로부터 필요한 서비스의 유형화가 가능함

제조업체의 내부 기능과 아웃소싱 서비스의 대응관계

기업 내부의 주요 기능	외부 생산자서비스
전략수립/신시장개척	경영컨설팅, 시장조사, 박람회 또는 전시회 조직
정보관리(IT서비스와 인프라)	컴퓨터 서비스, 정보기술 컨설팅, 통신서비스
인사	인력 선발 및 공급, 전문훈련
생산/기술기능	엔지니어링 서비스, 시험/품질 관리, 유지보수/장비수리 서비스
연구개발/디자인 기능	연구개발, 산업디자인
마케팅	광고, 디렉트 마케팅, PR
구매/판매	유통거래(판매후 서비스 포함)
재무자원	금융 및 보험, 임대/리스
행정/회계	회계/감사, 법률, 조세 자문
운송/물류	물류, 운송, 특송, 부동산
시설관리	보안, 건물유지보수, 세탁, 식당, 환경/쓰레기 처리, 에너지/용수 서비스

자료: 김홍석·유현선(2007)

□ 또한 제조업의 분야별 아웃소싱 활용 경험을 보면 실제적으로 제조업체들의 생산자 서비스에 대한 수요 패턴을 예측할 수 있음

— 유현선(2007)에 따르면 시설유지관리가 54.3%, 유통·물류가 48.3%로 가장 많은 수요를 차지하고 있음

— 반면 포장, 전시행사, 엔지니어링, IT 아웃소싱, 컨설팅 등은 고부가가치 창출에 필수적인 서비스기능이지만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낮아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정지원·전동진(2007)에서 실시한 인천의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도 마케팅, 디자인, 경영컨설팅 등의 업종이 육성되어야 할 것으로 제시된 바 있음

제조업의 분야별 아웃소싱 활용 경험(2006)

(단위: %)

분야	유통·물류	포장	전시행사	시설유지관리	시험검사분석	엔지니어링	IT아웃소싱	경영컨설팅	연구개발
활용비율	48.3	9.3	3.0	54.3	21.0	7.0	14.0	9.0	3.3

자료: 유현선(2007)

비즈니스 서비스 업종별 지원대상 업종

(단위: %)

분야	마케팅	디자인	경영컨설팅	기술서비스	법률서비스	연구개발	전시컨벤션	회계서비스	광고
빈도비율	17.0	14.9	14.9	12.8	12.8	8.5	8.5	8.5	2.1

주: 전문가들에게 비즈니스 서비스업종중 시급히 육성이 필요한 5개 업종을 선택하게 하고 그 결과 집계된 업종별 누적빈도수를 총빈도수로 나눈 비율임.

자료: 정지원·전동진(2007)의 그림4-4를 재구성.

(IT·BT 연계형 생산자서비스 개발)

- 제조업체들의 IT 활용은 IT아웃소싱을 통해 기업의 핵심역량에 효율적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경쟁력을 확보해주고 동시에 IT서비스업*의 내수 확대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함

* IT서비스업은 최적의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조직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해당 업무 및 사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하며, 기존 산업과 융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정의될 수 있음(이주량 2008)

- OECD에 따르면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주동력(key

driver)으로 연구개발, 인적자원, 규제완화 및 경쟁환경과 함께 IT기술의 활용이 언급되고 있음(유현선 2007).

- 제조업의 IT 아웃소싱은 90년대 후반 ERP시스템에서부터 최근의 BPM(Business Process Management), 네트워크를 통한 소프트웨어 제공(Software as Service), 원격유지보수(Remote Maintenance), 정보수명주기관리(Information Lifecycle Management) 등에 이르기까지 기업 정보의 전사적인 통합과 기업운영 프로세스의 효율화 등과 관련되어 있음

□ IT서비스업은 기본적으로 고부가가치산업이며 동시에 고용흡수력이 큰 산업임

- IT산업을 제조업부문과 서비스부문으로 구분하면 제조업부문 고용이 93~05년 기간중 3.2% 증가한 반면 서비스업 부문은 컴퓨터 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6.8% 증가하였음(김정연 외 2007 참조)
- 미국의 경우에는 2005년 기준으로 IT산업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중 IT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7%인 반면 IT서비스업의 비중은 73%이며, 미국 전체의 IT고용인력중에서 차지하는 IT제조업의 비중이 37%인 반면 IT 서비스업의 비중은 63%임
- 또한 양 부문의 취업계수와 취업유발계수를 비교해보아도 IT서비스업 부문이 IT제조업 부문보다 고용창출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IT산업의 부문별 취업계수와 취업유발계수 추이

(단위: 명/10억원)

		1995	2000	2003
취업계수	전산업	15.9	11.8	10.4
	IT산업	13.8	5.6	3.8
	(IT제조업)	14.3	5.8	3.6
	(IT서비스업)	12.9	5.3	4.2
취업유발계수	전산업	26.5	19.4	16.9
	IT산업	25.1	14.2	8.6
	(IT제조업)	28.5	15.2	8.3
	(IT서비스업)	17.7	12.1	9.4

주: 취업계수는 10억원(2003년 가격기준)당 취업자수이며, 취업유발계수는 10억원당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수임.

자료: 한국은행(2007), 이주량(2008)에서 재인용.

□ IT서비스업의 수요 창출을 위해서는 IT를 활용하여 부가가치와 노동생산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도소매, 금융서비스, 사업서비스업 등을 육성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IT서비스 활용도는 도소매업의 성장 둔화와 사업서비스업의 성장 정체로 인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노동생산성(1인당 부가가치)도 서비스기업들의 영세성으로 인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 바이오산업은 글로벌 인재의 이동이나 바이오 물질 및 제품의 수출입이 많은 글로벌 산업으로 이와 관련된 국제 비즈니스에 특화할 수 있다면 바이오산업 육성을 통한 서비스업 수요확대에 기여할 것임

—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국제바이오비즈니스센터(가칭)를 설립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국내 전체의 국제바이오비즈니스서비스 수요를 흡수한다면 인천 바이오클러스터의

위상은 그만큼 높아질 수 있음

- 주요 바이오 비즈니스 서비스로는 기술상업화, 시장 조사, 마케팅 전략, 타당성 분석, 특허, 인허가, 수출입 절차 컨설팅 등 국내 바이오의약품의 해외 진출과 관련된 지원 서비스와 바이오 원료의 수급 및 제품의 분석, 평가, 검증 및 품질 보증 등의 서비스 등을 들 수 있음
- 또한 바이오산업에 특화된 전시, 컨벤션 등을 통해 국내외 네트워킹 센터로서 정보교류 및 인적 교류의 중심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음

(효율적인 서비스산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서비스산업의 효율적인 발전과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총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종합지원네트워크가 필요함

-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 제조업과 서비스업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생산자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제조업에서의 서비스 관련 수요에 대한 조사작업과 함께 이에 대한 DB 구축을 실시함
- 또한 이 네트워크는 중소기업들이 개별 차원에서는 획득할 수 없는 정보, 지식, 노하우, 기술 등을 아웃소싱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이 됨

□ 대부분의 서비스업종의 품질과 경쟁력이 전문 인력의 역량에

달려 있으므로 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함

- 대한상공회의소의 ‘국내 지식서비스산업 경쟁력 실태 및 애로요인’ 조사(2007.11)에 따르면 서비스 선진국에서 배워야 할 점으로 규제완화 등 제도선진화(33.1%), 인력 양성 및 공급시스템(19.6%) 등이 가장 많이 나왔고, 지식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의 과제에 대해서도 핵심인력 확보 및 양성(28.4%)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 최근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생산자서비스산업으로서 컨벤션 산업 등은 아직 충분한 교육콘텐츠와 인프라가 구비되어 있지 않으므로 서비스 분야별 전문대학원의 설립이나 기존 교육훈련기관의 신규 과정 신설 등이 요구됨
- 특히 인천경제자유구역은 국제도시의 건설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국내에 유입되는 외국방문객들과의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외국어 교육 및 외국 문화에 대한 교육과정도 필요함

<참고문헌>

- 고정민(2008), '정책 목표에 따른 서비스산업의 분석 및 유형화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제21권 제1호.
- 권웅기 외(2006), 'IT를 통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 사례분석,' 한국정보사회진흥원.
- 기획재정부 외(2008), '성장동력 확충과 서비스수지 개선을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Service PROGRESS I'(2008. 4. 25).
- 김민우 · 노원종(2008), '서비스수지 적자 지속 원인과 대책: 주요 서비스수지 개선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은행.
- 김정언 · 이영수 · 서환주 · 이은민 · 정현준 · 김재경(2007), 'IT산업의 파급효과 분석과 산업간 불균형성장 해소방안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김정우(2008),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국제 비교,' 삼성경제연구소.
- 김주훈 · 안상훈 · 이재형(2006),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 KDI.
- 김홍석 · 유현선(2007),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산업 동반성장전략 연구,' 산업연구원.
- 김희석 · 변창욱 · 송하율 · 정종석(2005), "지역서비스산업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방안", 산업연구원.
- 김희석 · 조현승 · 하봉찬(2007), '서비스산업 성장동력화의 한계와 대응방안의 모색,' KIET 산업경제, 2007년 4월.
- 김현정(2006), '서비스산업 비중증가의 원인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경제분석 제12권 제4호, 2006년 12월,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 남주하 · 남재현 · 허지은(2007), "서비스업 총조사 결과 심층분석", 서강대학교 시장경제연구소.
- 마남진 · 고경철(2004), '인천지역 서비스산업의 현황과 과제,' 한국은행 인천본부.
- 박성욱(2008),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기술진보 확산효과 분석,'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 박연숙 · 최성호(2006), "주요 선진국의 서비스산업 정책사례 연구", 중소기업연구원.
- 신창식 · 조한상(2003),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연관구조 및 경쟁력 분석,' 조사통계월보, 2003.6. 한국은행.

- 심우일(2005),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의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원
- 오영석 · 이진면 · 후지카와키요시(2006), “개방경제하에서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그 성과측정에 관한 연구: 한국과 선진국간 비교분석,” 산업연구원.
- 오정연(2006), ‘IT강국 한국의 새로운 성장동력 IT서비스산업,’ 한국정보사회진흥원.
- 유병규(2007), ‘비즈니스서비스업의 현황과 육성전략,’ 서울경제, 통권 26호, 2007. 5,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유현선(2007), ‘제조업의 IT서비스 아웃소싱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산업연구원.
- 이건우(2007), ‘중국의 서비스산업 발전 전략과 시사점,’ e-KIET 산업경제정보, 산업연구원.
- 이건우(2008), ‘서비스산업 연관구조의 국제비교와 시사점,’ e-KIET 산업경제정보, 산업연구원.
- 이권형(2006), “인천지역 바이오산업의 발전방안: 바이오의약 및 의료분야를 중심으로”, 인천발전연구원.
- 이근 · 정무섭 · 김윤지(2008), “‘선도 추격’에서 ‘동반 추격’으로의 전환을 위한 서비스산업의 역할과 전략’,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
- 이병희 · 조병익 · 김영민(2007),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진입장벽 현황분석,’ 한국은행.
- 이인규(2007), “‘2003년 인천산업연관표’로 본 인천지역 경제구조와 산업연관효과”, 한국은행 인천본부.
- 이주량(2008), ‘IT서비스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이다: IT제조업에서 IT서비스업으로의 전환,’ 현대경제연구원.
- 이홍직 · 장준영(2007), ‘서비스업의 성장부진 요인 분석’, 한국은행.
- 재정경제부 외(2006),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 세부내용’, 2006. 12. 12.
- 재정경제부 외(2007a), ‘제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 세부참고자료’, 2007. 7.
- 재정경제부 외(2007b), ‘제3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대책’, 2007. 12. 10.
- 정종인 · 김진용 · 황문우(2006), ‘우리나라 지식기반서비스업의 현황 및 발전방향,’ 한국은행.

- 정종인 · 박장호 · 김영민(2007), '사업서비스업의 현황 및 발전방향', 한국은행
- 정준호(2007), '한국 서비스산업의 구조와 발전 방향', 동향과 전망 68호.
- 정지원 · 전동진(2007), '인천시 지식서비스산업지원센터 설립 · 운영방안', 인천발전연구원
- 정호성(2007), '일본의 서비스산업 활성화 전략과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 최봉현 · 김홍석 · 조현승 · 하봉찬(2007), "서비스산업의 미래와 경쟁전략", 산업연구원.
- 최봉현 · 박정수(2008), "서비스 지출구조 분석과 산업성장 효과", 산업연구원.
- 최용재 · 김진웅 · 강두용(2007), '우리나라 생산자서비스 산업의 국제경쟁력 추이와 시사점', 산업연구원
- 통계개발원(2008), "한국의 서비스산업", 통계개발원.
- 하봉찬(2008), '서비스산업의 발전과 정책적 지원방안', e-KIET 산업경제정보, 2008. 3.12. 산업연구원.
- 한국은행(2007a), "2003년 산업연관표", 한국은행.
- 한국은행(2007b), "산업연관분석해설", 한국은행.
- 허재준 · 서환주 · 이영수(2007), "한국경제의 구조 변화와 서비스업 고용", 한국노동연구원.
- 황병우, '일본의 비즈니스 서비스산업 육성전략과 시사점', 대은경제리뷰

〈 한국은행 인천본부 이용안내 〉

◆ 방문견학

- 견학내용 : 인천본부내 화폐전시실 및 경제홍보실 관람, 경제교육용 영상물 시청, 경제교육 등
- 신청 : 기획조사팀(☎ 032-880-0047)

◆ 경제교육 강사지원

- 강의내용 : 합리적 소비 및 저축, 한국경제의 현황과 과제, 바람직한 금융생활, 신용관리의 중요성 등
- 문의처 : 기획조사팀(☎ 032-880-0047)

◆ 종합경제안내센터 이용

- 제공정보 : 한국은행 인천본부가 편제하는 각종 경제통계 및 발간자료
- 문의처 : 기획조사팀(☎ 032-880-0047)

◆ 중소기업 금융이용 안내

- 안내내용 : 중소기업 금융이용 안내 및 애로사항 접수
- 문의처 : 업무팀(☎ 032-880-0062)

◆ 외환종합상담센터

- 상담내용 : 외국환거래법령 및 동 규정상 한국은행 신고 등 사항에 대한 민원업무 및 외국환거래 상담
- 문의처 : 업무팀(☎ 032-880-0062)

◆ 화폐교환 서비스

- 서비스내용 : 손상화폐 교환 및 위변조화폐 신고·접수
- 문의처 : 업무팀(☎ 032-880-0064)

〈 한국은행 인천본부 홈페이지 이용 안내 〉

- ◆ 수록자료 : 한국은행 인천본부 보도자료 및 조사연구자료, 각종 통계자료 및 지역경제정보 등
- ◆ 접속방법 : 한국은행 홈페이지 <http://bok.or.kr>에서
우측상단에 지역본부 - 인천본부 선택
- ◆ 문 의 처 : 기획조사팀(☎ 032-880-0047)

“돈을 깨끗이 쓰면 나라경제에 큰 보탬이 됩니다.”

인천 서비스산업의 성장동력 확충방안:
제조업과의 연계를 기반으로

2008년 12월 29일 인쇄·발행

발행 : 한국은행 인천본부

인쇄 : 서원기업(주)

(02)759-4935 ~ 6

《非賣品》